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언론정보학석사학위논문

한국 미디어의 다문화 청소년 재현에  
대한 연구

2018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권 윤 주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 미디어의 다문화 청소년 재현에 주목한다. 이 논문에서 ‘다문화 청소년’은 국내에서 출생한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로서 만 19 세 이하의 청소년을 의미한다. 이들은 이주의 경험을 가진 이산적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중적 정체성 혹은 디아스포라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함께 논의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로서 이주자와는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을 한국 사회의 새로운 시민 주체로 보고, 미디어 텍스트 분석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의미화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떠한 담론 아래에서 논의되는지 고찰하고자 했다.

특히 사람들은 미디어에 재현된 다문화 청소년을 통해 이들에 대한 인식 틀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의 다문화 청소년들은 미디어와 상호작용하며 정체성을 구성해나가기 때문에 미디어의 다문화 청소년 재현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이 재현된 미디어 텍스트의 서사적 특성은 무엇인가?’, ‘다문화 청소년이 재현된 미디어 텍스트는 어떤 사회적 담론을 동원하는가?’ 질문하고, 다양한 장르의 미디어 텍스트 8 개를 분석함으로써 답을 구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장편 영화 〈세리와 하르〉, 〈완득이〉, 〈마이 리틀 히어로〉, 단편 애니메이션 〈샤방샤방 샤랄라〉, 텔레비전

드라마 〈깜근이 엄마〉, 〈그 형제의 여름〉, 웹드라마 〈오늘부터 하모니〉, 웹툰 〈엄마는 외국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미디어 텍스트의 내적 구조 분석을 위해 서사 분석을 하였고, 이와 같은 텍스트 분석을 기반으로 담론 분석을 시도했다.

연구 결과 다문화 청소년은 대다수가 비백인 혼혈로서 온순하고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을 향한 차별적인 언행에 대해 저항하지 않고 있었다. 서사 속에서 다문화 청소년과 함께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 다문화 청소년 부모도 함께 분석했는데, 미디어에 재현된 다문화 청소년의 외국 출신 부모가 대부분 결혼이주여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국 출신 부모의 성별과 국적을 살펴본 결과, 필리핀 여성 4 명, 베트남 여성 1 명, 우즈베키스탄 여성 1 명, 프랑스 여성 1 명, 미국 남성 1 명이었다. 또한 이들은 헌신적이고 생활력이 강한 엄마이자 아내로 재현되고 있었다. 그리고 다문화 청소년의 아버지는 한국 사회의 하위계급에 속하는 주변부적 남성으로 그려지고 양육 문제에 있어 소극적이었다. 또한 이들은 상대적으로 극중 등장 비중이 적었으며 서사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서 한 발짝 물러나있었다.

미디어 텍스트가 다루는 주요 갈등의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가정 내의 갈등이 자주 반복되었는데 특히 다문화 청소년과 어머니 사이의 갈등이 두드러졌다. 그리고 가정 내의 갈등은 어머니의 사랑, 이해, 관용을 통해 해결되었다. 둘째, 미디어 텍스트의 다문화 청소년은 이질적인 외모 때문에 내적, 외적 갈등을 겪고 있었다. 특히 비백인 혼혈 청소년은 어두운 피부색 때문에 주위 또래 및 어른들로부터 차별 받았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은 주변인들로부터 자주 ‘외국인’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다문화

청소년은 자신이 ‘한국인’임을 계속해서 말함으로써 증명해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피부색으로 인한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 서사가 종결되었다. 이와 같은 외모로 인한 갈등의 반복적 재현은 다문화 청소년의 타자화와 약한 존재로 정형화 하는 데 바탕이 되고 있었다.

위와 같은 구체적 텍스트 분석 결과와 한국의 사회적 담론을 오가며 분석한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은 한국의 가부장적 전통 가족에 기초한 다문화 가족 담론에서 재현되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의 아버지인 한국인 남성은 가부장적이고 공적 영역에 관련된 일에 주로 관여하며, 결혼이주여성인 어머니는 가정, 즉 사정 영역 내에서 아내와 며느리 그리고 엄마로서 역할하고 있었다.

둘째, 한민족 담론은 다문화 청소년을 ‘우리’로 포섭하면서 그 범주를 확대하고자 한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위계적 인종주의는 한민족 담론의 확장적 움직임을 저지한다. 이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은 확장적인 한민족 담론과 위계적 인종주의 이데올로기와의 움직임 사이와 인종적 권력 체계의 경계에서 완전한 ‘우리’도 아니고, ‘타자’도 아닌 불안정한 존재이다.

이와 같은 다문화 청소년의 미디어 재현 문제는 문화적 시민권의 논의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미디어가 다양한 구성원을 재현하는 것은 곧 그들에 대한 의미를 구성해나가는 과정이며, 사회 구성원 간 공유하는 의미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미디어의 재현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확인하며 소속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의 다문화 청소년 재현은 다문화 청소년의 시민으로서의 소속감 문제와

연결될 수 있고, 이러한 점은 대중문화의 재현 문제가 시민권의 논의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다문화 청소년, 민족주의, 인종주의, 재현, 서사분석, 담론분석

학 번: 2015-22556

## 목 차

제 1 장 문제제기 .....	1
제 2 장 미디어와 재현(representation) .....	7
제 1 절 미디어와 재현(representation) .....	7
제 2 절 미디어와 현실 구성 .....	11
제 3 장 한국의 다문화주의 .....	14
제 1 절 전지구화와 다문화주의의 문제 .....	14
제 2 절 미디어의 다문화·이주민 재현 연구 .....	20
제 4 장 다문화 청소년의 재현 .....	26
제 1 절 왜 청소년이 문제인가? .....	26
제 2 절 다문화 청소년 .....	28
제 3 절 다문화 청소년의 재현에 대한 연구 .....	34
제 5 장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 .....	39
제 1 절 연구 문제 .....	39

제 2 절 연구 방법 .....	3 9
1. 서사 분석.....	3 9
2. 담론 분석.....	4 1
제 3 절 연구 대상 선정 과정.....	4 4
제 6 장 연구 결과 및 논의 .....	5 2
제 1 절 다문화 청소년이 재현된 미디어 텍스트의 서사 분석.....	5 3
1. 다문화 청소년 캐릭터 특징: 인종과 성격.....	5 3
2. 다문화 청소년 부모 캐릭터 특징: 인종과 성격.....	5 7
3. 서사의 갈등 유형과 해결 .....	6 0
제 2 절 다문화 청소년을 둘러싼 가족 담론: 가부장적 전통 가족... 6 8	
제 3 절 다문화 청소년을 둘러싼 한민족 담론 .....	7 2
1. 한민족의 확장적 움직임 .....	7 3
2. 극복해야 할 인종주의.....	7 7
제 7 장 결론 및 제언 .....	8 3
제 1 절 연구의 요약과 의의.....	8 3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 .....	8 7
참고문헌 .....	9 1
부록 .....	9 8
Abstract .....	1 0 4

## 표 목 차

〈표 1〉. 연도별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2012~2015).....	3 0
〈표 2〉. 지상파 3 사의 외국인 출연 드라마 (2013.01-2017.04) .....	4 9
〈표 3〉. 연구 대상 영상 텍스트 목록.....	5 1
〈표 4〉. 연구 대상 미디어 텍스트 줄거리 .....	5 2
〈표 5〉. 한국인 및 외국인과의 혼인 비교.....	6 9

## 제 1 장 문제제기

최근 나이지리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를 둔 모델 한현민이 국내외에서 주목 받고 있다. 국내 언론은 2016 년 3 월 패션쇼 모델로 데뷔한 한현민을 ‘국내 최초 흑인 혼혈 모델’로 수식하며 그를 떠오르는 ‘스타’로 그를 지목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그를 ‘2017 년 가장 영향력 있는 10 대’로 선정하기도 했다.<sup>1</sup>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한현민은 패션쇼뿐만 아니라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활동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한현민과 같이 국제결혼 가정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 자녀 약 10 만명이 현재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

한국은 다문화 사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한국 내의 이주민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는 자명한 사실이다. 2017 년 3 월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sup>2</sup>에 따르면, 한국 내 체류외국인 수는 총 1,522,29 명이다. 국내 체류외국인 중 큰 비율을 차지하는 집단은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이다. 하지만, 일시적 정주만 허용된 이주노동자는 정부 지원과 정책의 관심 밖 대상이다. 반면 한국의 인구 감소 문제 및 가족 재생산 해결 차원에서 결혼이주여성은 정부의 다문화 정책 중심 대상자이기에

---

<sup>1</sup> TIME STAFF(2017. 11. 03).The 30 Most Influential Teens of 2017. <TIMES>. URL:<http://time.com/5003930/most-influential-teens-2017/>

<sup>2</sup>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7 년 3 월)

다양한 혜택 및 지원책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다문화주의가 ‘가족’을 중심으로 형성 및 발전해왔던 것을 고려했을 때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아직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사회 담론 안에서 이들은 비가시적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 자녀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가? 본 연구에서는 국내출생 국제결혼 자녀들(이하 ‘다문화 청소년’)에 주목하고자 하는데, 이들은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청소년이다. 이는 교육부의 분류법에 기초한 것인데, 교육부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은 크게 국제결혼 가정 자녀와 외국인 가정 자녀로 나뉜다. 그리고 국제결혼가정자녀는 다시 국내출생과 중도입국자로 분류된다. 국내출생 국제결혼 가정 자녀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중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를 뜻한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다문화 청소년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2016 년 기준 교육부의 보도자료<sup>3</sup>에 따르면 현재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은 총 99,186 명이다. 그리고 이들 중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은 총 79,134 명으로 총 다문화 학생 중 약 70%를 차지한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부모 중 외국인의 국적별 비율을 살펴보면 중국(한국계 포함)이 33.7%, 베트남 24.2%, 일본 13.0%, 필리핀 12.6% 등으로 다문화 학생 대부분이 아시아계 혼혈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대부분 동아시아 국가의 혼혈인으로서 외모가 한국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

<sup>3</sup>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7 년 01 월 13 일 조간, 배포일시: 2017 년 01 월 12 일)

있다. 그리고 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어를 구사하며 한국 시민으로서 교육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대부분 이주의 경험을 가진 이산적 존재가 아님에도 다문화 사회, 이주 담론 안에서 이중적 정체성 혹은 디아스포라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과 쉽게 구분되지 않은 채 함께 논의된다. 이는 정부 정책에서도 확인 가능한데, 최근 교육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문화학생의 잠재능력을 적극 개발하여 우수 인재로 육성하는 글로벌 브릿지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글로벌 브릿지란 다문화 학생의 잠재 능력을 적극 개발하고,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4 개 분야(수학, 과학, 글로벌리더십, 언어, 예체능)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을 뜻한다. 다문화 학생이 대부분 국내출생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라는 점 하나 때문에 이들은 ‘글로벌 인재’로 호명된다.

인종적 소수자가 이산의 경험을 가졌다고 상정되며 타자화 되는 현상은 다인종으로 구성된 이민 국가인 미국에서도 볼 수 있다. 미국 사회 내의 인종적 소수자들, 이민 2 세대 혹은 3 세대는 시민권을 가진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타자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소수 인종과 이주민에 관련된 주류 사회의 인식 체계와 선입견은 풍자 소재로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아시안계 미국인들은 유튜브(youtube)나 트위터(twitter)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기 조상의 출신지를 묻는 백인들의 끈질긴 질문을 풍자한다. 이민 2 세대, 3 세대는 미국에서 태어나 완벽한 영어를 구사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이 미국인임을 설명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미국에서와 같이 인종과 민족에 대한 인식체계가 농담의 소재로 쓰일 만큼 다인종, 다민족 사회 구성원의 소속감 및 정체성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내 체류의 이주민의 증가와 다문화 가정 자녀 수의 증가율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다양한 피부색, 머리카락 색, 눈동자 색을 가진 한국인이 존재한다는 것, 그들이 이 사회의 동등한 시민 구성원이라는 것에 대한 논의를 확대시켜 나가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담론 구성의 중요한 주체가 미디어라는 점을 전제하고, 미디어의 다문화 청소년 재현(representation)을 분석하고자 한다. 미디어의 재현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고, 그 사회의 권력 관계에 의해 선택과 배제가 이루어진 결과물로서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재현의 문제는 곧 권력의 재배열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구성원이 ‘어떻게’ 재현되는지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과 같은 사회 내의 소수자 집단의 미디어 재현은 그 집단에 대한 스테레오타입(stereotype)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스테레오타입은 사회적, 상징적 배열의 유지 메커니즘이고, 이것은 정상과 이탈, 정상적인 것과 병적인 것, 수용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무엇이 속하는지 혹은 타자인지 내부자와 외부자, 우리와 그들의 경계를 구획하기 때문이다(Hall, 1997).

다른 한편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회를 미리 체험하고 미래 사회의 규칙을 미리 실험하고 있는 존재이며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어른과 다른 존재가 아니라 다른 시민”(조한혜정, 2002, 150 쪽)이기 때문에 다문화 청소년이 어떻게 재현되는지 분석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다문화 관련 현상을 탐색하고, 미래 사회의 패러다임을 구성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우리는 다문화 청소년이 재현된 미디어 분석을 통해 우리는 현재 한국 사회의 담론이 누구를 포섭하고 배제하는지, 그 과정에는 어떠한 권력 체계가 작동하는지 읽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다양한 시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나아가, 재현의 대상이 되는 다문화 청소년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 재현된 미디어를 확인하면서 자신이 사회에서 어떠한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고, 이러한 미디어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정체성을 구성해 나가기 때문에 이들의 미디어 재현 문제는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디어의 재현은 사회 안의 다양한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통로로서 사회 구성원의 인정(recognition)과 시민권의 문제로 논의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사회 구성원임을 확인함으로써 스스로를 그 사회의 시민으로 정체화하며 소속감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디어의 재현은 궁극적으로 시민권 실천의 토대를 마련해 준다.

전지구화(globalization)와 이주(migration) 그리고 미디어의 매개로 설명되는 현대 사회 흐름 아래 다문화 청소년은 한국 사회 내의 새로운 시민으로 등장했다. 이들은 한국 사회 내의 진정한 시민으로서 향후

노동시장에 진입할 주체들이다. 따라서 미디어가 다문화 청소년에 대해 어떠한 의미와 담론을 생산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은 현재를 넘어 미래 한국 사회의 공동체의 다양한 시민들의 공존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의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텔레비전, 드라마, 웹드라마, 웹툰에 재현된 다문화 청소년을 고찰하고자 한다.



## 제 2 장 미디어와 재현(representation)

### 제 1 절 미디어와 재현(representation)

본 연구는 미디어를 이데올로기 재생산의 담론적 실천 주체로 상정하고, 미디어의 재현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재현되는 대상이 어떻게 의미화 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지식과 이데올로기 구성 과정으로서의 담론을 고찰하고자 한다. 홀(Hall, 1997)은 재현(representation)이 한 문화의 구성원들 간에 의미가 생산되고 교환되는 과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홀은 문화를 의미 생산과 교환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실천 체계로 봤다. 이러한 점에서 의미 생산과 교환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재현 체계는 문화적 구성물이면서 문화의 흐름(circuit of culture)의 중요한 요소이다.

한 문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서로 공유하는 문화적 코드를 기반으로 한 공통의 의미 체계 안에서 소통한다. 홀(Hall, 1997)의 관점에서 미디어의 재현은 한 사회 내의 의미 생산과 교환 과정이고, 따라서 의미 체계는 곧 미디어 재현을 통해 공유 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때 미디어는 언어, 기호, 이미지 등을 사용함으로써 어떠한 대상을 재현한다.

기호학은 언어의 구성 원리를 재현의 체계로 보고 이를 분석했는데, 미디어 텍스트의 재현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재현 연구의 이론적 토대인 구조주의 기호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호학은 텍스트를 '구조화된 전체'로

파악하면서 텍스트에 숨겨진 함축적 의미를 연구한다. 기호학은 구조주의 언어학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는데, 구조주의 언어학은 언어학 자체, 언어 내부 구조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미디어 텍스트가 일련의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는 기호학적 접근을 취한다(Chandler, 2006).

기표(signifier)와 기의(signified)가 만나 만들어진 기호(sign)는 기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또 다른 의미를 만들어낸다. 그 예들 중 하나로 환유(metonymy)가 있다. 환유는 부분이 전체는 나타내는 것을 뜻하는데, 미디어 영역의 광고에서 주로 쓰인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을 광고할 때 광고는 그 전체를 드러내지 않고 부분을 전달함으로써 광고가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를 전달한다. 그런데, 이런 환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편견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특정 부분이 전체의 특징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 바로 정형화, 스테레오타입(stereotype)이기 때문이다. 스테레오타입은 한 집단에 대한 편견은 그 집단의 일부 특징이 마치 전체인 것 같이 만든다. 여기서 집단 내부의 차이는 무시되고, 집단의 부분적 특징은 일반화 된다. 인종주의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 드러난다. 가령, 흑인은 랩을 잘 하고, 운동 신경이 뛰어날 것이라는 스테레오타입(stereotype)이 있다. 이렇게 사회 내에서 기호와 의미체계가 반복적으로 생산되면 그것은 하나의 사회 관습으로 굳어지고, 신화화 되기도 한다(Thwaites, Davis, & Mules, 2002).

이렇게 사회적 권력과 지배의 관점에서 볼 때, 미디어는 피지배자에 대한 재현을 통해 편견을 재생산하고 그들의 권력을 강화하여 왔다는 비판이 존재해왔다(김세은, 김수아, 2007). 에드거와 세즈윅(Edgar and Sedgwick,

2002)에 따르면, 재현의 체계는 재현의 실천들과 규범을 연결시킴으로 해서 매스 미디어를 통해 특정한 사회적 집단들의 이미지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되는 이미지는 재현되는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보다는, 이들을 정형화함으로써 이들의 정체성을 구성한다(김세은, 김수아, 2008).

같은 맥락에서 프랑스의 사회학자 마쎈(Macé, 2000)는 텔레비전을 투쟁의 장과 같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다양한 의미들 간의 투쟁을 거친 결과가 텔레비전에 재현되고, 이는 의미를 둘러싼 타협들(compromises)의 상징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적 움직임과 그에 반한 움직임, 헤게모니와 반-헤게모니 운동의 지속적인 투쟁은 미디어 영역에서 확장되고, 텔레비전에는 열려있는 세계, 사회, 정체성의 상징적 재현들이 존재한다.

마쎈(Macé, 2000)는 재현의 투쟁 중심에는 현실 세계의 정의(definition) 문제가 있는데, 현실 사회의 정의 문제가 갖는 쟁점들은 정치적인 동시에 이데올로기적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사실상 현실 사회를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따라 법적, 제도적 중재 혹은 판정을 강화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해 재현을 조정하거나 현실 해석의 틀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매개(미디어)의 생산물들을 ‘지배와 비지배’ 사이의 타협 결과를 반영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텔레비전은 문화적 재현을 통해 사회 관계를 번역해주는 하나의 특정한 형식이다. 마쎈(Macé, 2000)에 의하면 텔레비전이 시장의 상업주의 영향 아래 있지만 단순한 문화적 상품이 아니고, 텔레비전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으며 지배 이데올로기를 반영하지도 않는다고 봤다. 물론 텔레비전이 어떠한 관점, 해석적 프레임을 조직하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문화연구의 수용자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텔레비전에 무비판적으로 현혹되지 않는다. 사회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장으로서 시장의 원리 아래, 사람들로 하여금 세계에 대한 관점, 힘의 관계, 문화적 갈등에 다가갈 수 있게 해준다. 마쎈은 텔레비전에 한정했지만, 그의 논의는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영화, 웹툰 같은 다른 미디어 재현에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미디어에 다양한 사람들을 재현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재현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미디어에 재현된 결과물은 일정한 ‘선택’을 거쳐 구성된 것으로서 재현 대상의 정형화에 대한 문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스테레오타입(stereotype)은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다른 그룹 구성원들의 개인적 속성에 대해 갖고 있는 믿음들”을 말한다(강주현, 임영호 2011). 리프만(Lippmann, 1922/2012)은 스테레오타입이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상(像)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새로운 시민으로서의 다문화 청소년의 미디어 재현이 곧 이들에 대한 의미 체계를 생산하는 과정이고, 미디어가 이들을 둘러싼 이데올로기를 재생산 하는 담론의 주체라고 전제하는 입장을 취하며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한다.

## 제 2 절 미디어와 현실 구성

미디어는 사회를 관찰하여 고유의 작동 방식을 거쳐 사람들에게 일정한 상을 부여한다(오창우, 2012). 미디어의 재현 시스템이 수동적으로 사회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반영론적 입장과 미디어 재현 시스템이 능동적으로 사회 현실과 그 의미를 구성한다는 현실구성론적 입장이 있다. 본 연구는 후자의 논의 안에 위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디어에 다양한 사회 구성원을 재현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중매체는 실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세계에 가장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이다. 우리는 사회나 역사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지식도 대중매체를 통하여 실어 나르고, 자연에 대한 지식도 대중매체를 통하여 얻고 있다”(Luhmann, 1996: 오창우, 2012, 220 쪽 재인용).

이렇게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사회와 현실을 인식할 수 있다. 미디어의 사회적 현실 구성에 대한 입장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미디어가 문화와 사회의 관계를 연결해준다는 점 때문에 미디어의 현실 구성이 중요하다는 관점이 있다. 둘째, 미디어의 미디어의 효과의 하나로 미디어의 현실 구성을 보는 입장이다. 이를 이론적으로 나누자면, 전자는 유럽의 비판이론가들의 관점이고, 후자는 미국 중심의 효과이론가들의 관점이라 할 수 있다(Adoni & Mane, 1984). 비판적 이론을 바탕으로 둔 연구들은 매스 미디어가 헤게모니 및 주류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유지 및 재생산 하는지 다루었다. 반면,

후자는 매스 미디어가 수용자 개개인의 현실 구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측정하였다.

미디어와 현실 구성에 대해 연구한 대표적 연구자는 조지 거브너(George Gerbner)이다. 그는 1970 년 <문화적 지표: 텔레비전 드라마의 폭력(Cultural indicators: the case of violence in television drama)> 연구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사람들의 문화적, 사회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구성한다는 것에 주목했다. 후에 거브너의 이론은 젠더, 인종과 같은 다양한 주제와 잡지, 신문과 같은 다양한 미디어에 적용되었다(Fiske & Hartley, 2003). 또한 거브너와 동료들은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이 보여주는 실제 현실의 상징적 재현과 이러한 상징적 환경이 사회적 현실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했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많이 시청하는 사람들은 사회 현실을 텔레비전에서 보여진 것과 같이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계발이론(Cultivation theory)은 미디어 내용과 스테레오타입 습득을 연관 지었다. 스테레오타입을 보여주는 미디어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사람은 사회 현실의 스테레오타입 수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피스크와 하틀리(Hartley & Fiske, 2003)는 거브너의 문화적 지표 프로젝트가 대중 문화의 실증연구 전반을 아우르는 선구적인 연구라고 평가하며, 미디어 효과 연구와 문화적 현상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바로 이 지점에서 만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두 학자도 비판적 접근과 실증적 접근 모두 아우르는 입장을 취한다. 그들에 따르면, 텔레비전의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사회 세계와 분명히 다르지만, 텔레비전이 보여주는 세계는 실제 세계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했다. 특히, 텔레비전이 실제 사회를 재현한다기 보다는 가치의 구조와 표면 아래의 관계들을 상징적으로 반영한다고 했다.

우리가 일상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미디어가 사회 구성원을 어떻게 재현하는지는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더욱이 한국이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 모든 곳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현실을 구성하는 미디어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문화사회, 다문화주의, 결혼이주여성, 외국인노동자, 외국인에 대한 현실을 구성하는 것은 대중매체다. 대중매체의 현실구성 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특정 사회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하거나 편견을 만들어 내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오창우, 2012, 217 쪽).

## 제 3 장 한국의 다문화주의

### 제 1 절 전지구화와 다문화주의의 문제

국제 이주가 증가하면서 한 사회 내에 다양한 인종, 민족이 어떻게 공존하는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다문화주의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다문화주의는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배경을 가진 개인들이 한 사회에 존중을 바탕으로 한 공존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고 정의할 수 있다. 국제 이주의 증가는 세계 경제, 정치, 커뮤니케이션, 물리적 환경,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전 지구화로 설명된다. 전 지구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고, 사회 내의 변화를 가져오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다(Thomlinson, 2006, p.10; 주재원, 2016 재인용). 아파두라이(Apadurai, 2006/2011)는 전 지구화를 자본주의, 제국주의, 신 식민주의, 근대화 혹은 국가 주도의 경제 및 사회 개발(개발주의)의 새로운 국면 혹은 현상이라고 보는 데 반대하고, 전 지구화의 새로운 국면에 주목할 것을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세계 경제 차원에서의 전 지구화와 더불어 엘리트뿐만 아니라 단순 노동 이주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이주 형태가 새로운 전 지구화의 현상 및 문제를 초래했다고 한다. 이렇게 전 지구화는 자본의 이동뿐만 아니라, 인구의 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제적인 이주의 증가는 전 지구화의 주요 요소이다. 다양한 이주민은 전 지구화의 촉매제 같은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국가를 연결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인구 이동 증가의 주요 요인은 전 지구화와 관련되어 있는데, 교육 수준의 향상, 근대화로 인한 의식주의 동질성 증대, 국제 미디어 급증, 교통수단 발달, 사업과 노동 시장의 국제화 등이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주재원, 2016).

이와 같은 현상은 국가 정책, 학계 등의 차원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우선 학계에서는 정치철학 영역에서 다문화주의가 활발히 논의되었다. 여기서 다문화주의는 토대로 하는 이론에 따라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공동체주의적 다문화주의 등으로 나뉘지만 다문화주의 이론은 다음의 두 가지 전제를 공유한다. 첫째, 다문화주의는 “근대의 계몽주의 기획(Enlightenment project)에 대한 인신론적 반성을 함축한다”(한준성, 2010, 291 쪽 재인용)는 것과 둘째, 자아(self)는 개인이 속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규정되며 문화가 개인적 자유의 핵심적 조건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다문화주의는 이성적인 개인의 자유를 전제하며 그 개인은 자신이 속한 문화의 영향 아래 문화를 통해 자유를 실천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수의 다문화주의 이론가들은 개인 자유와 정체성 형성에 있어 (소수집단) 문화가 갖는 역할의 중요성에 동의한다(한준성, 2010).

대표적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자 킬리카(Kymlicka, 2002/2006, 467~482 쪽)는 다문화주의를 둘러싼 논쟁을 3 단계에 걸쳐 정리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1989 년 이전의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 간의 논쟁이다. 여기서

공동체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자들을 비판하며 공동체 권리를 옹호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유주의 내부의 다문화주의 논쟁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가 다문화주의를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한다.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소수자 권리가 개인의 자율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교육과 보건의료에 대한 거부권을 인정하거나 여성의 공적 활동을 억압하는 소수자 권리를 인정할 경우 개인적 자율성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소수자들이 자유주의의 기본 원칙을 공유함에도 소수자의 권리가 필요한가 질문한다.

김리카의 입장에서 문화는 선택이 아닌 주어지는 환경이며 다문화주의와 소수자 권리가 양립 가능하다고 본다.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소수자 권리가 집단 내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것이다. 둘째, 소수자 권리가 집단 간 평등 관계(비지배)를 증진시켜야 한다(Kymlicka, 2002). 세 번째 단계는 국민 만들기의 응답으로서의 다문화주의다. 자유주의 국가는 국민 만들기, 국가 형성 과정에서 공통된 문화와 정체성을 강조하며 인종문화의 다양성을 ‘선의의 무관심(benign neglect)’을 이유로 외면했다. 그런데 이는 오히려 소수자의 문화와 권리에 침해를 가져올 수 있어 새로운 국민 만들기 모델 제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실 정책 차원에서 다문화주의는 각국의 역사, 문화, 사회적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존재하는데, 다양한 소수자들과 민족 집단들의 시민권 투쟁이 진행되며 미국,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 서구 국가에서 다문화주의가 주목

받았다(안지현, 이상길, 2007). 최초의 공식적 다문화주의 정책은 1970 년대 초반 캐나다와 호주에서 시행되었다. 캐나다의 경우 1969 년 공식어 법령(Official Language Act)을 제정하면서 프랑스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했는데, 캐나다 퀘벡 지역 프랑스계인의 문화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이들의 분리운동을 차단하고자 했다. 이후 1988 년 ‘다문화주의 법령(Multiculturalism Act)을 제정하는 등 캐나다는 공식적으로 다문화주의 국가임을 명시했다(Joppke, 2001; 윤인진, 2008).

호주는 모든 호주인에게 호주의 이익과 미래를 무엇보다도 우선시 할 것을 요구하며 다양성에 제한을 두었다. 스웨덴이나 네덜란드는 다문화 정책 대상을 이민자로 한정했다. 미국의 경우 다인종으로 이루어진 이민 국가이지만 캐나다나 호주와 다르게 명시적으로 ‘다문화주의’ 정책이나 법을 실행하지는 않았다. 물론, 소수자의 권리 보장 및 확보를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sup>4</sup>가 시행되었기에 이를 미국의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볼 수도 있다(Joppke, 2001).

이들 국가와 달리 한국에서 다문화 현상은 비교적 최근에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국제 이주의 흐름에서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이주민 송출국이었으며,

---

<sup>4</sup> “미국 역사에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1961 년 케네디 대통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0952 호는 평등고용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uncil)의 수립을 지시하면서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후 본격적으로 고용부문에서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게 된 것은 1965 년 존슨 대통령의 행정명령 11246 호이다(Eisaguirre, 1999: 장지연, 2006, 168 쪽 재인용)”.

이주민의 유입국으로서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 세기 중반부터 약 150 년 동안 한국인이 꾸준히 해외로 이주한 것과 달리 이주민들이 한국으로 유입된 것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일이라 할 수 있다(Yoon, 2012). 1980 년대 후반, 한국 내부적으로 고용 시장의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3D 직종의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1991 년 법무부 훈령으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 사증발급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과 ‘시행세칙’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단순 기능 인력 중심의 이주 노동자 유입 정책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다문화 및 이주민 정책의 중심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결혼이주민 및 다문화 가족이기 때문에 2000 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담론이 시작되었다. 연구자들은 2006 년 정부가 내놓은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기본대책’이 한국 사회 전반의 다문화 용어 사용의 증가와 변화를 가져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데 동의한다(김혜순, 2008; 윤인진, 2008; Kim, 2010).

2000 년대 초반까지 한국에서 ‘다문화’는 서구 현황 소개 과정에서 간단히 언급되는 정도로 사용되는 데 그쳤지만 2004 년 이후부터는 ‘다문화’주의 용법이 달라졌다(안지현, 이상길, 2007). 김은기(Kim, 2010)에 따르면 한국에서 다문화 혹은 다문화적(multicultural)이라는 용어가 1964 년 10 월 24 일에 경향신문 기사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고 했다. 한국에서 1960 년부터 1991 년까지 ‘다문화’는 미미하게 언급되었는데, 2000 년 이후 다문화라는 용어 사용 빈도가 점점 늘어났고, 특히 2006 년에 접어들어 급격히 증가했다고 한다.

2000년대 중반에 접어들어 다문화주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 배경으로는 정부의 대대적인 다문화 및 이주자 관련 정책 발표 및 홍보가 있다. 이해경(2008)은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 원인을 외부적, 내부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우선 외부적으로는 2005년 프랑스의 인종 폭동 발생 및 하인즈 워드의 방한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한국 내에 거주하는 이주자가 많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관리 체계 정비가 필요했다고 한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등이 제정되는 등 이 시기에 정부는 한국을 다문화 사회로 만들어 가는 데에 앞장섰다. 그러나 학자들은 한국의 다문화 관련 정책이 겉으로는 ‘다문화’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동화에 초점을 맞춘 동화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양경은, 함승환 2015), 정부의 이주 관련 정책은 다문화주의는 차치하고 동화주의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상으로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한다(오경석, 2009).

한국 내 장기 체류 외국인 수는 점점 증가하여 2016년 말 기준<sup>5</sup>으로 장기 체류 외국인은 1,530,539명이다. 관광객 같은 단기 체류 외국인 수까지 합하면 국내 체류외국인은 2,049,441명으로 2015년 대비 8.5%(159,922명)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국내 체류 외국인은 매년 9.26%의 증가율을 보인다. 이와 같은 사회 현상은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맞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과는 별개로, 한국 사회 내에서 다양성의 문제, 다인종·다민족의 공존의 문제가 더욱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

<sup>5</sup>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2016).

## 제 2 절 미디어의 다문화·이주민 재현 연구

전지구화(globalization)와 이주(migration)로 인하여 다문화주의가 중요한 이슈 및 현상으로 떠오름에 따라 이에 대한 학술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특히 다문화 사회의 주요 문제 중 하나로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이 만날 접점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Scheffer, 2000; Meijer & de Bruin, 2003, pp.695 재인용)은 다문화 사회의 미디어 재현의 중요성을 말해주기도 한다. 또한 사회 담론 구성의 주체로서 미디어가 어떻게 특정 집단에 대한 의미를 생산하는지에 따라 사회 구성원의 인식 틀이 구성될 수 있고, 권력 관계를 고착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의 소수자, 예를 들어 이주민 같은 집단의 재현의 문제는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디어 연구 영역에서도 다문화, 다문화주의, 이주민 등과 관련된 주제로 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졌다.

미국은 다인종, 다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인 만큼 미디어의 인종 재현과 관련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는 미디어가 인종적 다양성 자체 재현과 더불어 다양한 인종이 어떠한 메시지와 결부되어 재현되는지에 따라 정형화되는지 보여줌으로써 다문화 사회의 미디어 재현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인종 별로 어떻게 정형화되는지 살펴보면 재현을 분석한 연구에서 흑인은 위험한 범죄자, 가난하고 저학력의 폭력적인 존재로 정형화 되고 있다(Abraham & Appiah, 2006; Downing & Husband, 2005). 라티노, 특히

라틴계열의 이주민들은 뉴스에서 범죄자, 불법체류자로서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존재이며 일자리를 빼앗는 것으로 묘사된다(Dixon & Linz, 2000; Santa Ana, 1999). 아시아인의 경우 열심히 일하고, 가정적이고, 고학력의 준범 정신이 강한 모델 마이너리티(model minority)로 정형화 된다(Kwai, 2005). 반면, 원주민의 경우 미디어 재현 비율 자체가 극히 낮았다(Mastro & Stern, 2003). 이러한 미디어의 재현은 인종에 따라 다른 의미 체계를 생산하면서 인종에 관한 권력 관계를 유지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한다.

하지만 미디어가 특정 집단을 과재현하거나 과소 재현한다는 것에 문제 의식을 갖고 수정해나간 선례도 존재한다. 마쎈(Macé, 2007)는 다양한 인종 재현을 도외시한, ‘색맹(color-blindness)’이었던 프랑스 텔레비전이 사회적 현상 및 논의 흐름 아래 다양성 재현을 중시하게 되었는지 고찰했다.

프랑스에서 공식적으로 미디어 재현의 다양성에 관한 내용 분석을 시작한 것은 오래 되지 않았다. 프랑스의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규제하는 독립적인 공공 기관인 프랑스 시청각 최고 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이하 CSA)는 2006 년 3 월 31 일 <기획 균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 년부터 “다양성 바로미터(Baromètre de la diversité)”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텔레비전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엑스트라 포함)의 ‘출신’(인종), 성, 직업, 장애, 나이 등을 측정한다<sup>6</sup>.

---

<sup>6</sup> 출처: CSA 홈페이지. URL: <http://www.csa.fr/csa/Television/Le-suivi-des-programmes/La-representation-de-la-diversite/La-diversite-a-la-television/Le-barometre-de-la-diversite>

2006 년 법률 제정 이전까지 미디어의 가시성(visibilité)은 비공식적 조사만 이루어졌다. 1999 년 당시 CSA 대표가 개인적으로 ‘가시성을 위한 투쟁’에 관심을 가졌고, 차별에 대한 현실을 평가하기 위해 이에 관한 질적, 양적 연구에 착수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00 년도에 〈프랑스 텔레비전의 가시적 소수자의 재현과 출연(Présence et représentation des minorités visibles à la télévision française)〉 연구 결과가 발표 되었다(Macé, 2007).

이에 따르면 프랑스 텔레비전에서 흑인은 부정적으로 스테레오타입화 되어 재현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흑인은 이중성을 가진 존재, 사기꾼, 질투, 토착민, 규범을 일탈하는 존재로 재현됐다. 반면, 아랍인은 텔레비전에 전혀 재현되지 않고 있었다. 프랑스 텔레비전은 개인을 민족화(ethnocrisation), 인종화(racialisation)하고 있었는데, 비백인들의 백인 규범 일탈은 가시적으로 묘사되고 있었다. 이에 반해, 비백인들에 대한 차별 과정은 드러나지 않았다(Macé, 2007).

특히 2005 년 파리 소요 사태 이후 프랑스 텔레비전은 ‘차이’의 표상과 미디어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노력했고, 이때부터 CSA 의 다양성 바로미터 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프랑스 텔레비전에서 비백인들의 재현 비중이 늘어났는데, 이는 새로운 스테레오타입을 등장시켰다. 예를 들어, 대항적-스테레오타입(contre-stereotype)은 기존 중산층 백인의 역할에 인종만 바뀐 배우를 출연시키는 형태이다. 다양한 인종이 미디어에 재현된다는 것은 긍정적 변화로 감지되고 있으나 프랑스 텔레비전은 비백인들이 겪는 차별 문제를 드러내는 데에는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지적되고 있다(Macé, 2007).



한국에서도 다문화 이슈가 중요해지면서 이주자와 다문화의 미디어 재현에 관련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한국의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등 이주민이 재현된 미디어를 분석한 다수의 연구들은 미디어가 이주민을 타자화, 정형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언론 보도 분석 연구의 경우, 연구자들은 복수의 언론사들을 선정하여 언론 매체가 이주자 및 다문화를 어떻게 보도하는지, 또 언론사 간 차이가 보이는지 양적 분석을 수행했다. 이들 연구 결과는 공통적으로 미디어가 이주민에게 한국 문화로의 동화 중요성 강조하고, 이주민을 온정주의적 프레임 안에서 다루고 있으며, 이주민은 주체적이기 보다는 수동적인 존재로 재현되고 있었다고 지적한다(김경희, 2009; 김세은, 김수아, 2009; 이미선, 최진봉, 2016; 채영길, 2010). 특히 언론사가 지향하는 이데올로기가 달라도 이주민에 대한 프레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이미선 최진봉, 2016; 황경아, 2013). 반면, 채영길(2010)은 뉴스 매체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강조되는 타자화 프레임에 차이가 있다고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민족 프레임은 매체 성향과 상관 없이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었다고 했다.

한국 문화와 한민족 중심적인 담론은 이주민과 같은 타자의 동화를 요구한다. 이렇게 국가 중심적 미디어 재현은 드라마나 휴먼 다큐멘터리와 같이 다른 미디어 장르에서도 나타난다. 김예란, 유단비, 김지윤(2009)은 다문화 요소를 포함한 텔레비전 드라마의 내러티브 분석을 통해 다문화적 드라마가 지극히 ‘한국적’이고, 남성중심적이고 결론지었다. 이렇게 미디어가 한국 문화로의 동화를 강조하며 결혼이주여성들을 약하고 순응적인 존재로

정형화, 타자화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마정미, 2010; 김수정과 김은이, 2008; 권금상, 2013; 조진희, 2012; 권용희, 2013). 이들 연구는 미디어 재현을 분석함으로써 복잡하게 얽혀있는 인종과 젠더의 문제를 고찰했다.

반면 인종 문제에 방점을 둔 미디어 재현 분석 연구는 인종주의가 어떻게 존재하고 강화되는지 밝혔다. 예를 들어, 이희은, 유경한, 안지현(2007)은 광고 분석 과정에서 다문화, 인종적 다양성이 단순하게 피부색, 외모로 단순화 되고 있으며 다인종의 재현은 글로벌 사회 속의 한국인과 경쟁력을 뒷받침 하는 장치라고 한다. 홍지아와 김훈순(2010)은 KBS TV 의 휴먼다큐멘터리 <인간극장>를 분석했는데, 한국인의 외국인 배우자의 인종과 출신국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사회와의 차별적 관계를 형성하는 선택적 포섭과 배제전략을 취함을 발견했다.

물론 홍지아(2011)의 연구를 통해 이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기 재현함으로써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희망적이다. 이주여성들은 자기 재현 과정에서 다양하고 성숙한 자기서사를 드러내는데, 이는 기존 미디어의 재현 연구와 반대되는 결과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이주자 집단이 사회에서 보다 주체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 내의 주된 담론 생산자는 기존 미디어이기 때문에 기존 미디어가 이주민을 어떻게 재현하는지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정리하자면, 선행 연구들은 미디어가 장르와 매체 성향을 막론하고 가부장적, 동화주의적인 시각에 입각해 이주민을 정형화 및 타자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주민의 출신 국가나 인종에 따른 재현에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미디어에 인종주의적 시각이 개입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재현 체계는 이주민을 둘러싼 차별적 담론과 권력 관계를 생산함으로써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공존 및 사회 통합을 위협한다.

## 제 4 장 다문화 청소년의 재현

### 제 1 절 왜 청소년이 문제인가?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미디어 재현에 주목한다. 여기서는 청소년의 미디어 재현 연구가 왜 중요하고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감 확립의 중요한 시기이다. 청소년은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10 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들은 부모에게 의존적이었던 아동기를 지나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해나가고자 한다. 청소년은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겪으면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데, 이 과정에서 청소년은 '자신이 누구인가'하는 자아정체성의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하고,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과 지위 변화를 경험한다(Erikson, 1968).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발달 요인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가족, 학교, 사회적 요인이다. 특히 사회적 요인은 청소년 문화 특히 대중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대중매체를 통해 자신의 정체감 형성에 큰 영향을 받는다(김창남, 1994: 이미리, 조성연, 길은배, 김민, 2014 재인용).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은 미디어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정체성을 구성하기도 한다. 사회심리학자 쿨리(Cooley)에 따르면, 자아정체성이란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생산물이다. 그는 자아 정체감을 거울자아(looking-

glass self)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했는데, 이는 개인이 타인에 비쳐진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개념을 형성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타인'이란 개인을 둘러싼 '중요한 타자(significant others)'로서 가족, 또래집단, 친척 등과 같이 일차적이고 친근한 대면적 집단 및 자신이 속한 사회의 가치 체계 등의 2 차 집단까지를 포함한다(Cooley, 1912: 이동원, 박옥희, 2011 재인용). 여기서 사회의 가치 체계를 만들어가는 주체 중 하나는 미디어이고, 미디어가 청소년을 어떻게 의미화 하는지가 중요해진다.

이에 더하여 현대 청소년들은 어려서부터 미디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자라온 존재들이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미디어를 접하며 성장했기 때문에 미디어가 자연스럽고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Prensky, 2001: 강진숙, 박지혜, 2015, 118 쪽 재인용)라고 라고 명명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디어가 청소년을 어떻게 재현하고, 이들을 어떠한 주체로 의미화 하는지가 청소년 자신에게도 중요하다. 자신이 속한 집단이 부정적으로 재현되고, 주변화되고, 정형화된다면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회를 미리 체험하고 미래 사회의 규칙을 미리 실험하고 있는 존재이며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어른과 다른 존재가 아니라 다른 시민”(조한혜정, 2002, 150 쪽)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청소년 간 다양성과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또한 청소년의 미디어 재현을 분석하는 것은 사회적 이슈를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 오스거비(Osgerby, 2004)는 영국 영화 <틴에이지 스토리(The young ones)>(1961)의 중심 인물로 등장한 청소년은 ‘계급 없는(classless)’, ‘역동적인’ 존재로 재현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미디어 텍스트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 1960년대 초반 영국의 이데올로기적 담론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했다. 당시 영국 사회 내부에 흐르고 있는 사회 담론은 영국 사회가 새로운 근대성(modernity)과 합의(consensus)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미디어의 청소년 재현은 그들의 문화나 생활 양식을 그대로 반영한다기 보다는, 청소년에 대한 특정 해석 체계를 제공하고,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를 구성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의 다문화 청소년의 미디어 재현에 주목하고자 한다.

## 제 2 절 다문화 청소년

그렇다면 다문화 청소년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가? 본 연구에서는 국제 결혼한 부부를 주축으로 하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 중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를 연구하고자 하며, 이를 ‘다문화 청소년’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교육부의 다문화 가정 자녀 분류 체계가 가장 세부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이를 토대로 하였다. 교육부는 다문화 학생을 국제 결혼 가정 자녀와 외국인 가정 자녀로 분류하고, 국제결혼 가정 자녀는 다시 국내출생 국제결혼 가정 자녀와 중도입국자로 나뉜다. 본 연구가 고찰하고자 하는 다문화 학생은 국내출생 국제 결혼 가정자녀이다.

그런데 사실 다문화 가정 자녀가 정확히 누구인지에 대해 아직 합의된 정의는 없다. 따라서 정부 각 부처별 목적에 따라 다문화 가족 자녀를 지칭하는 대상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정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는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인이어야 하고, 부모가 둘 다 외국인인 경우는 다문화 가정 자녀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교육부는 다문화 가정 자녀에 외국 국적자 사이의 자녀도 포함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도 교육부와 마찬가지로 부모 모두 외국인인 미성년 이주민까지 정책대상에 포함한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통계에는 부모 양쪽 모두 외국인인 미성년 이주민은 포함하지 되지 않는다.

2017 년 1 월 13 일 교육부가 발표한 보도자료<sup>7</sup>에 따르면, 2016 년 기준 초·중·고에 재학하는 다문화학생<sup>8</sup>은 총 9 만 9 천여 명으로 전체 학생 대비 1.68%에 달한다. 이 중 국내 출생 다문화 가정 자녀는 초·중·고를 합하여 총 79,134 명으로 전체 약 80%를 차지한다. 그리고 이들 부모의 국적 중

---

<sup>7</sup> 교육부(2017). 2017 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발표. URL: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0224&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503&opType=N>

<sup>8</sup> 다문화가정 학생 수 = 국제결혼가정 자녀(국내출생 자녀 + 중도입국 자녀) + 외국인가정 자녀

중국(한국계 포함) 33.7%, 베트남 24.2%, 일본 13.0% 순으로 많다. 교육부는 다문화 가정 자녀 중 만 6 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 약 11 만 6 천 명으로 향후 학령기 자녀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표 1〉. 연도별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2012~2015)<sup>9</sup>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소계	국내출생	중도입국	소계	국내출생	중도입국	소계	국내출생	중도 입국			
2012	31,951	29,282	2,669	9,179	8,194	985	3,083	2,536	547	1,789	448	326
2013	35,829	32,823	3,006	10,305	9,162	1,143	4,358	3,793	565	3,531	975	500
2014	44,808	41,546	3,262	11,702	10,316	1,386	6,312	5,562	750	3,417	804	422
2015	54,156	50,191	3,965	12,443	11,054	1,389	7,411	6,688	723	6,006	1,384	735

(단위: 명)

1. 다문화가정 학생 수 = 국제결혼가정 자녀(국내출생 자녀 + 중도입국 자녀) + 외국인가정 자녀
2. 국내출생 자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중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
3. 중도입국 자녀: 국제결혼가정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자녀
4. 외국인가정 자녀: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외국인 근로자 자녀, 재외동포 자녀 등)

<sup>9</sup>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5),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유·초·중등 교육통계편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인 결혼이주민(주로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들은 새로운 연구 영역으로 인식되어 다양한 연구 영역, 예를 들어 사회학, 인류학, 국문학, 사회복지학에서 짧은 시간에 다양한 주제로 다루어졌다(윤인진, 2008). 하지만, 현재까지 다문화 가족 구성원 중 결혼이주민으로 볼 수 있는 ‘이주여성’, ‘결혼여성이주민’,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다양한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다수 이루어졌지만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하나인 자녀들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대다수의 연구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존재로 상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육을 다룬 연구(심상민, 2011; 이수미, 2011),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 생활 관련 연구(김기덕, 박민서, 2009; 장온정, 2010; 황매향, 고흥열, 김진영, 2010; 한진상, 김효선 2011; 천호성, 박계숙 2012; 박시균, 최지은, 2015)가 있다. 이 연구들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학교 생활 적응 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다문화 가족 내 의사소통 및 커뮤니케이션 연구(이지민, 오인수, 2013; 김성길, 김효선, 2011), 다문화 가정 자녀의 차별 경험 및 갈등 문제를 다룬 연구(조민식, 2012; 박미숙, 이미정, 2014; 김현식, 2016; 이지연, 그레이스 정, 2016; 김수진, 홍창희, 2017)가 있다.

그런데 황매향, 고흥열, 김진영(2010)이 다문화 가정 아동 담임 경험에 있는 교사를 인터뷰 한 결과,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같은 나라 출신의 친구를 붙여주는 등 다문화 가정 자녀를 ‘특별한 존재’로

보고 대하는 것은 오히려 이들을 소외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3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에도 잘 드러난다.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연구 보고서의 질적 연구 결과(양계민, 신현옥, 박주희, 2014, 285~286 쪽)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다문화 가정 부모 및 자녀는 일반인의 다문화에 대한 관심에 대해 '상관 없다' 또는 '관심 없다', '생각해본 적 없다'라고 느낀다고 응답하였다.<sup>10</sup>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대한 조사결과는 자녀들의 결과보다 그 층위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많이 나타난 반응은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특히, 다문화가 '부족한', '못사는', '도움이 필요한' 등의 부정적 관념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다문화가정자녀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때 불쾌하고 자신의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좋지 않은 영향들에 대해 걱정하기도 하였다. 이는 정혜실(Jung, 2016)은 다문화 가족이 한국인과 서구 이주민에 비해 열등한 집단으로 범주화 되고, '다문화'라는 명칭이 붙음으로써 이들은 진짜 한국인이 될 수 없고, 그들의 다양한 정체성은 지워졌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

<sup>10</sup> 양계민, 신현옥, 박주희 (2014).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4-R16). URL: [http://www.nypi.re.kr/brdrr/boardrrList.do?menu\\_nix=15klNsa2&brd\\_id=BDIDX\\_PJk7xvf7L096m1g7Phd3YC&srch\\_ctgry\\_idx=CTIDX00002](http://www.nypi.re.kr/brdrr/boardrrList.do?menu_nix=15klNsa2&brd_id=BDIDX_PJk7xvf7L096m1g7Phd3YC&srch_ctgry_idx=CTIDX00002)

또한 다문화 가정 자녀 대부분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보다는 '필요 없다' 또는 '관심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기본적 지원이 일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특별한 관심이나 대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별로 상황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양계민, 신현옥, 박주희, 2014).

그런데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 자녀들도 '다문화가정출신' 범주에 속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엉뚱한 정책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2014 년 <다문화청소년 종단 연구 보고서>(294 쪽)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자녀의 출생국이나 이주배경,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다문화 학생에게 한국어 수업을 실시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한국에서 태어난 청소년들을 '다문화가정출신'이라는 범주를 정해 놓고 한국어 수업을 듣게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면접자: 그런데 00이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잖아. 한국말 쓰는게 어렵니?

학생-12: 아니오.

면접자: 근데도 갔어?

학생-12: 네. 그냥 하라고 해서 했는데.

면접자: 누가?

학생-12: 선생님이랑 엄마가.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에 난민신분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교수이기도 한 욤비 토나가 얼마 전 한 언론사와 인터뷰 도중 한 얘기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해 보다 심층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운다. 욤비 토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아직 한국인이 아니다. 한국

사회가 그렇게 여기지 않고 있다. 이 아이들이 더 크면 나쁜 생각이 나올 수 있다. ‘내가 왜 한국 사람이 아니야. 여기에서 태어나고 세금도 내는데 나보고 한국 사람 아니라고 하면 되나.’ 이런 아이들이 계속 나쁜 생각을 하면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하며 국가 정책, 미디어, 교육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sup>11</sup>

### 제 3 절 다문화 청소년의 재현에 대한 연구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다문화 청소년은 한국에서 출생한 국제 결혼 가정의 자녀이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 청소년은 연구 대상의 중심을 이루기 보다는 연구 대상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졌다. 예를 들어,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 가정을 분석한 연구의 일부로 고찰되었다. 다문화 청소년은 이주민 못지 않게 중요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연구 영역에서 주변부에 머물렀다.

이것은 미디어의 텍스트 부족에서 기인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이주민들이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장르에서 재현되는 것과 달리, 다문화 청소년은 매우 제한적으로 미디어에 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

<sup>11</sup> 강기현, 박민제, 성호준 (2017, 4, 09). 다문화센터에 실제로 다문화는 없어 김치·한국어 전수 한국문화센터 불과. <중앙선데이>. URL: <http://news.joins.com/article/21454659>

우리는 소수의 선행 연구를 통해 미디어에 재현된 다문화 청소년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연구 대상인 다문화 청소년 내부의 차이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이주 배경과 관련된 청소년을 별도의 맥락이 결여된 채 분석에만 치중했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앞서 살펴본 이주민 관련 연구의 결과와 다문화 청소년의 재현 연구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다문화 청소년은 미디어에서 정형화되고 타자화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예를 들어, 김지혜(2017)의 연구는 한국 언론이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을 다루는 프레임을 5 개로 유형화 했는데, 언론은 다문화 청소년을 사회 지원의 수혜자, 글로벌 인재, 문제를 가진 잠재적 범죄자로 봤다. 또한 미디어는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 사회 적응을 강조하는 동시에 한국 사회도 다방면으로 변화할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한다. 김지혜는 도출한 프레임을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담론, 그리고 차별배제모형 맥락과 연결 지어 이해했는데 이는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결여된 결과이다.

권금상(2008)은 이주 아동이 영상 미디어에 어떻게 재현되는지 분석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고찰했다. 그런데 이 연구는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거나 이주와 관련된 아동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으나, 그 집단 내부의 차이를 외면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결혼이주민의 자녀와 새터민 아동은 한국인으로 적극 포섭되는 존재이지만, 이주 노동자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없고, 한국에 정주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이들은 각기 다른 담론 안에서 다루어 질 필요가 있다.

이소현(2014)은 다문화 가정 2 세가 출연한 TV 교양프로그램을 분석하여 다문화가정 2 세의 미디어 재현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미디어는 타자/하위주체로서 다문화가정의 정형화하고, 다문화가정 2 세의 이산적 정체성을 포섭하는 동시에 배제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연구에서도 이산의 경험이 있는 존재와 없는 존재가 함께 논의되면서 그 차이를 분명히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다문화 청소년이 연구 대상에 부분적으로 포함되기도 했는데 이 연구도 앞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주여성들의 자녀, 즉 다문화 청소년들이 관용과 시혜의 대상으로서 타자화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마정미, 2010).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다문화 청소년은 이주자와 한국인의 자녀들로서 국내에서 출생하여 성장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 청소년은 법적으로 출생부터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고,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선행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타자화 되고 있다. 이들은 우리 안의 타자로 의미화 되어 존재한다.

해외의 경우, 이민 2 세대 및 3 세대 등이 한국의 다문화 청소년과 유사한 존재이다. 이민 2 세대 및 3 세대는 그 자신이 이주를 한 것이 아니라, 부모 혹은 조부모가 이주한 정착국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그들 부모 혹은 조부모의 출신 지역 및 인종 때문에 쉽게 타자화 된다. 예를 들어, 칠레 출신의 혈통을 가진 노르웨이 청소년의 경우, 오슬로에서

태어나 오슬로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비-서구 출신, 무슬림 출신의 사람은 ‘타자’로, 백인의 노르웨이 민족 정체성을 가진 ‘우리’로 구별되는 노르웨이 국가 정체성 담론 아래 ‘타자’로 간주된다(Mainsah, 2011).

또한, 이탈리아의 텔레비전과 신문이 이주 배경을 가진 청소년을 어떻게 재현하는지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외국인 부모가 이탈리아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청소년들은 이탈리아로 말하고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미디어에서 근본적으로 이탈리아 청소년과 완전히 다른 존재로 재현되거나 토착(autochthonous) 이탈리아인과 같다고 재현된다고 한다(Sredanovic & Farina, 2015).

정리하자면 청소년기는 정체성 구성에 있어 중요한 시기이다. 이때 청소년은 또래나 가족 등의 타인, 혹은 미디어와 상호작용하며 자신이 다른 사람과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차이점을 갖는지 확인하는 과정 안에서 정체성을 확립해나간다. 따라서 미디어가 이들을 어떻게 재현하는지는 청소년에게 중요하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한국 사회에 새로운 집단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미디어가 다문화 청소년을 어떻게 재현하느냐의 문제는 곧 이들의 정체성 문제와도 직결된다. 다른 한편으로 미디어의 다문화 청소년 재현은 사람들에게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인식 틀을 제공할 수도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정형화나 타자화의 문제는 중요성을 갖는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다문화 청소년은 한국에서 출생하고 성장하는 존재로서 이산적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주자 논의와 함께 고찰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별도의 사회 담론 아래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조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다문화 청소년의 미디어 재현을 분석하는 것은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가 어떠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패러다임을 구성해야 할 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 제 5 장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

### 제 1 절 연구 문제

[연구 문제 1] 다문화 청소년이 재현된 미디어 텍스트의 서사적 특성은 무엇인가?

1. 다문화 청소년 개인의 캐릭터 특징은 무엇인가?
2. 다문화 청소년 부모의 캐릭터 특징은 무엇인가?
3. 서사가 다루는 주요 갈등의 유형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2] 다문화 청소년이 재현된 미디어 텍스트는 어떤 사회적 담론을 동원하는가?

### 제 2 절 연구 방법

#### 1. 서사 분석

미디어 텍스트의 재현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조주의 기호학에 대해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기호학은 텍스트를 '구조화된 전체'로 파악하면서 텍스트에 숨겨진 함축적 의미를 연구한다. 기호학은 구조주의 언어학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는데, 구조주의 언어학은 언어학 자체, 언어 내부 구조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미디어 텍스트가 일련의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는 기호학적 접근을 취한다(Chandler, 2006).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미디어 텍스트 8 개의 서사 분석과 담론 분석을 시도한다. 우선, 서사(narrative)는 이야기(story)와 담화(discourse)로 구성된다. 이야기는 '누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뜻하는데, 사건, 인물, 배경 등의 선택에 의해 만들어지며 사건들의 집합이기도 하다. 또한, 담화는 이야기의 서술 방식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되었는가'를 의미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카메라 기법, 조명, 음악, 편집 방식 등을 포함한다(홍지아, 2011).

박진(2005)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서사학은 서사물들에 공통적으로 내재하는 보편 구조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 서사물들은 다양한 형태와 매체로 이루어진다. 서사학 이론을 정립한 채트먼은 서사구조가 문학 텍스트뿐만 아니라 영화 같은 기호 체계로도 변형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서사 분석이 다른 매체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했다. 서사학의 이런 경향은 “언어학적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더 이상 매체와 관련하여 연구 영역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통합된 전체로서의 체계를 파악하는 일반적인 방법론을 의미하는 구조주의”(14 쪽)의 영향으로도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야기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인물과 사건에 대한 계열체 분석을 시도한다. 그리고 통합체 분석으로서 서사 구조를 분석을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텍스트에 등장하는 주요 등장 인물들의 성격과 인종적 특징과 인물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또한, 각 텍스트가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 및 갈등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둘째, 토도로프(Todorov)의 통합체 이론을 토대로, 시퀀스를 통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전개를 거쳐 종결되는지 파악하고, 인물의 변화 과정을 살펴본다. 토도로프에 따르면, 서사는 대개 균형(equilibrium) 상태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갈등이나 문제를 촉발하는 어떠한 힘이 작용해 불균형(disequilibrium)상태가 시작된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힘이 개입해 새로운 균형을 찾는다. 균형으로 마무리 되는 서사의 종결(closure)은 매우 강력한 문화적 신화를 재현하며, 이는 미디어 수용자로 하여금 신화를 수용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Thwaites, Davis, & Mules, 2002).

## 2. 담론 분석

담론 분석은 "이 세상을 채우고 있는 사회적으로 생산된 개념이나 대상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유지되어 왔으며 어떠한 시대를 거쳐 오늘날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인지"(박명진, 2012, 14 쪽)에 대해 분석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는 텍스트 분석을 기반으로 담론 분석을 시도하는데, 이와 같은 담론 분석은 구조주의 언어학에 뿌리를 둔다.

담론 분석은 언어로서 텍스트를 분석하려는 노력, 즉 언어 내적 질서에 주목하는 측면과 텍스트를 사회적 실천의 맥락에 놓고 바라보려는 노력의 사이를 오가며 이루어진다(박해광, 2007). 언어 구조로서 텍스트에 접근한 예로는 프로프(Propp)의 민담 형태론이 있다. 프로프는 신화를 통해 전달되는 정신 구조의 시원성을 밝힌 레비스트로스(Levi-strauss)의 구조주의적 텍스트 분석을 이어 받아 민담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기능들의 연쇄에 주목한다. 이 밖에도 바르트(Barthes)의 기호의 신화론과 그레마스(Greimas)의 행위자 모델은 구조주의적 텍스트 분석의 예에 해당한다.

미디어 연구, 특히 문화연구에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담론 분석은 이데올로기 분석의 주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담론은 이데올로기가 물질화하는 장"(박해광, 2003: 이기형, 2006 재인용, 120 쪽)이다. 문화연구는 텍스트가 가진 문법과 의미를 통해 텍스트를 둘러싼 사회적 실천과 투쟁에 주목하며 담론적 실천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페어클라우(Fairclough)와 반다이크(van Dijk)는 '비판적 담론 분석'을 주도하며 담론 분석의 정교화를 위한 노력을 한다. 이들은 담론을 언어적 차원에만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 문화적

과정과 구조의 언어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상”(박해광, 2007, 104-105 쪽)으로 본다.

비판적 담론 분석은 담론과 사회 문화적 차원의 관계에 주목하며 담론 분석이 갖는 세 개의 층위를 강조한다(박해광, 2007). 첫째, 텍스트의 층위로서 텍스트의 내용과 형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의 서사 분석 과정이 여기에 해당된다. 미디어 텍스트에 등장하는 인물과 서사 갈등 그리고 그 전개 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분석을 토대로 다음 단계의 분석이 가능해진다.

둘째, 담론적 실천(discursive practice) 실천이 있다. 이것은 텍스트와 사회적 실천과의 연관을 뜻하는데, 텍스트의 생산 및 해석이 사회적 실천과 담론의 질서의 연관이기도 하다. 즉, “담론적 실천은 담론을 생산하고 해석하는 실천인 동시에, 담론의 질서 내에서 담론들 간의 연관의 문제”이다.

셋째, 사회적 실천의 층위가 있는데 이것은 권력과 이데올로기서의 담론을 의미한다. 담론은 그 자체가 사회적 실천이고 또 사회적 실천과의 관련이다. 따라서 비판적 담론 분석은 텍스트 내부에 함몰되지 않고, 텍스트가 위치한 맥락을 강조하며 주목한다.

본 연구에서 담론적 실천과 사회적 실천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 5 장의 제 2 절, 제 3 절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다문화와 관련된 담론으로서의 법과 정책에 주목한다. 궁극적으로 다문화 청소년을 재현하는 미디어 텍스트는 어떠한 의미에서 담론적 ‘실천’으로 존재하며, 동시에 어떤 ‘담론’ 안에 자리잡으며 다문화 청소년을 둘러싼 의미와 이데올로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 제 3 절 연구 대상 선정 과정

본 연구는 연구 대상으로 국내 출생 다문화 청소년이 주요 등장인물로 등장하여 내러티브를 이끌어가는 미디어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이 중심 인물로서 어떠한 갈등과 그 해결 과정을 겪어나가는지 분석하기 위함이다. 분석 시점은 한국에서 다문화 담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6 년부터 2017 년까지로 정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미디어 텍스트를 세부 장르 별로 구분해보면, 텔레비전 드라마 3 편, 장편 영화 2 편, 단편 애니메이션 1 편, 웹드라마 1 편, 웹툰 1 편이다. 서로 다른 장르는 각각의 문법과 특징을 갖고 있지만 본 연구는 각 장르의 미디어 텍스트 내부에 일정한 서사(narrative)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서사의 중심 인물이 국내 출생 다문화 청소년이라는 점이라는 기준으로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를 아우르며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에서 살펴보겠지만 현재까지 다문화 청소년이 주요 등장 인물로 등장해 서사를 이끌어가는 미디어 텍스트의 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 아래 최대한 많은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르를 함께 살피는 것이 불가피한 결과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미디어 텍스트는 모두 허구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허구를 분석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에 대해 머독(Murdock, 2011)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는 시민이 갖는 문화적 권리 중 하나를 “경험할

권리(Rights to experience)”(Murdock, 2011, 322 쪽)라고 했다. 이는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개인적, 사회적인 경험을 재현하는 다양한 방식에 접근할 권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이는 곧 미디어에 접근할 권리라고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부분 텔레비전의 뉴스, 시사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사회 현실에 접근할 수 있고, 개인 및 사회의 경험 탐색은 주로 허구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허구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들은 미디어 수용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등장인물이 만들어 가는 삶의 방식, 그리고 그들이 재현하는 감정 등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문화 청소년들이 서사 안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어떤 갈등을 겪는지 고찰하는 것은 의미 있다. 또한, 기존 한국인이 미디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에 대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 청소년의 시각에서도 자신과 비슷한 인물이 미디어에 어떻게 재현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들의 미디어에서 자신이 속한 집단이 어떻게 재현되는지 확인함으로써 사회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메팜(John Mephram)의 논의는 다문화 사회에서 미디어의 중요성 및 의미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에 따르면,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완전한 시민권의 역량과 호혜성을 발전시키는 핵심적 자원이다.

“이야기는 사람들의 삶에서 변함없이 발생하는 질문들에 대답하려는 노력 속에서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탐구의 형태를 제공한다. 내게 무엇이 가능한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나의 삶이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내가 아닌 누군가가 되는 것, 특별한 유형의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끊임없이 대답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 풍부한 상상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잘 알고 선택과 반응을 할 수 있다. ... 이러한 질문들과 능력들 그리고 기술들은 자아에 대한 의식, 즉 정체성을 갖는 데,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체계 내에서 타인들과 바람직한 교류를 하는 데 밑바탕이 된다,” (Mephram, 1990, p. 60: Murdock, 2011 재인용) 따라서 다음에는 미디어 장르에 따른 특징과 분석 대상 텍스트의 선정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 (1) 영화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 텍스트를 총 4 개를 선정했다. ‘한국 영화데이터 베이스’ 웹사이트 (<http://www.kmdb.or.kr>)에서 ‘다문화’, ‘혼혈’, ‘다문화가족’ 등의 키워드를 입력해 다문화 청소년이 주연으로 등장해 내러티브를 이끄는 영화를 추려냈다. 몇몇 영화는 국내 출생 다문화 청소년이 주요 등장인물로 등장해 연구 분석 대상으로 삼기 적합했으나, 영상 자료에 접근이 불가능하여 제외시켰다. 결국 최종적으로 총 4 편의 영화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다문화 청소년이 얼마나 희소하게 재현되는지 알 수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정책센터가 매년 발간하는 <한국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2006 년에서 2016 년 사이 매해 최소 100 편 이상의 영화가



제작 및 개봉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1 년 동안 생산된 수천 편의 영화 중 다문화 청소년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단 4 편에 불과했다.

## (2) 텔레비전 드라마

다문화 청소년이 재현된 텔레비전 드라마는 우리에게 다문화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에 대한 상징체계를 구성하게 해주므로 분석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하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이 등장하는 텍스트는 다문화 청소년과 그의 가족이 서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텔레비전 드라마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 재현된 가족의 모습은 가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구성하는 상징체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바탕으로 자신과 가족에 대해 행동 및 실천하기 때문이다(강명구, 김수아, 서주희, 2008).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이 주요 등장인물로 등장하는 지상파 채널의 텔레비전 드라마를 선정했다. 연구 대상을 선택하기 위한 텔레비전 드라마 조사는 주혜연과 노광우(2013)의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이 연구자들은 한국에서 다문화주의 담론이 시작된 시기를 2005 년으로 보고, 2005 년 1 월부터 2012 년 12 월까지 8 년간 지상파 3 사의 드라마에 재현된 외국인(혼혈인 포함)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이 조사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방영된 드라마 수는 총 512 편이었고, 이 가운데 외국인(혼혈인 포함)이 등장하는 드라마는 모두 33 편이었다고 한다. 이 중 외국인이 주연을 맡은 드라마는 총 6 편이었다. 다문화 청소년이 등장한

드라마 총 2 편으로 SBS <깜근이 엄마>(2006)와 KBS2 <오작교 형제들>(2011)이 있었는데, 다문화 청소년이 주연인 드라마는 <깜근이 엄마>가 유일했다.

이 연장 선상에서 본 연구는 2013 년부터 2017 년 4 월까지 지상파 3 사의 드라마에 나타나는 외국인을 조사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방영된 지상파 채널의 드라마는 총 264 편이었고, 이 중 외국인 및 혼혈인이 등장한 드라마는 총 11 편이었다. 11 편 중 다문화 청소년이 등장하여 주연을 맡았던 드라마는 <그 형제의 여름>(2015)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이 주연으로서 내러티브를 이끌어가는 텔레비전 드라마 <깜근이 엄마>(2006)와 <그 형제의 여름>(2015)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한 가지 특기할 점은, 다문화 청소년이 주요 등장인물인 두 편의 드라마가 정규 편성된 일일/주간/주말극 형태의 드라마가 아니라, 단막극 형식의 특별 기획 드라마라는 점이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이 드라마 제작의 특별한 소재로 여겨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구체적으로 SBS 의 <깜근이 엄마>는 2 부작으로 구성된 추석 특집 드라마로 제작되었다. 또한, KBS <그 형제의 여름>은 ‘KBS 드라마 스페셜’의 한 회차이다.

〈표 2〉. 지상파 3사의 외국인 출연 드라마 (2013.01-2017.04)

연 도	제 목	인 중	연 령 대	비 중
2013	여왕의 교실	백인 혼혈	성인	단 역
2014	앙큼한 돌싱녀	백인 혼혈	성인	단 역
	모던 파머	백인	성인	조 연
	모던 파머	백인 혼혈	어린이	조 연
	산너머 남촌에	베트남	성인	조 연
2015	맨드롱 도둑	흑인	성인	조 연
	오! 할매	백인	성인	조 연
	떴다 패밀리	백인	성인	단 역
	여왕의 꽃	백인	성인	단 역
	그 형제의 여름	흑인 혼혈	초등학생	주 연
2016	무림학교	백인, 흑인	성인	조 연
	한번 더 해피엔딩	백인	성인	단 역

### (3) 웹드라마

웹을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 콘텐츠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웹드라마’라는 새로운 형식의 드라마도 등장했다. 웹드라마란, “SNS 드라마, 모바일 드라마 등으로도 불리는 웹드라마는 인터넷을 통해 방영되는 드라마”(하재근, 2017)을 일컫는다. 웹드라마는 짧은 시간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은 간단한 서사로 구성된다. 이러한 점에서 한 시간 이상 길이인 드라마, 영화와 같은 층위에서 분석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보일 수 있지만, 웹드라마는 완전히 새로운 콘텐츠가 아니라 기존 드라마, 영화, 모바일 영화의 양식을 일부 취하며 분절적이고 단순한 동영상인 아니라 내러티브를 가진 콘텐츠로 진화한 것(전경란, 2015: 김미라, 장윤재, 2015

재인용)이기 때문에 서사를 가진 텍스트라는 점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다.

다문화 청소년이 주인공인 텍스트를 찾기 위해 네이버 웹드라마 플랫폼의 검색란에 ‘다문화’ 키워드를 넣어 골라냈고 〈오늘부터 하모니〉 1 편을 찾을 수 있었다.

#### (4) 웹툰

웹툰(webtoon)은 웹(web)과 만화(cartoon)의 합성어로 웹에서 보거나 웹상에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만화를 통칭한다(이상민, 2007: 이승연, 박지훈 2014 재인용). 웹툰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인쇄 매체로 출판된 만화의 연장, 대안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이제 웹툰은 하나의 새로운 미디어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이승연, 박지훈, 2014). 이러한 맥락에서 웹툰은 새로운 재현의 매개체로 이해할 수 있다.

다문화 청소년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웹툰을 찾기 위해 주요 웹툰 플랫폼에서 ‘다문화’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는 과정에서 〈엄마는 외국인〉 1 편을 찾을 수 있었다.

웹툰 〈엄마는 외국인〉은 프랑스 출신의 백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의 다문화 청소년이 주인공이 화자로서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이 웹툰은 내용적 측면에서 코믹 장르에 속하며, 2013 년 웹사이트 네이트([www.nate.com](http://www.nate.com))에 처음 연재 되었다. 네이트에는 시즌 1, 시즌 2 까지 연재되었고, 현재시즌 3 가 카카오페이지([page.kakao.com](http://page.kakao.com))에 연재되고 있다. 웹툰은 매 회가 하나의 에피소드를 다루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사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나 이야기는 없다. 그럼에도 해당 웹툰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와 이야기가 있기에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또한, 웹툰은 시각성(visibility)이 극대화된 콘텐츠 유형이고, 본 연구가 다문화 청소년의 ‘가시성(visibility)’ 측면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총 8 편의 미디어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정했다.

〈표 3〉. 연구 대상 영상 텍스트 목록

장르	연도	제목	주인공	주인공 연령대	외국인 부모 출신 국적
영화	2008	세리와 하르	박세리	초등학생	베트남(모)
	2011	완득이	도완득	고등학생	필리핀(모)
	2012	마이 리틀 히어로	김영광	초등학생	필리핀(모)
			성준		가봉
드라마	2010	샤방샤방 샤랄라	은진	초등학생	필리핀(모)
	2006	깜근이 엄마	명근	초등학생	필리핀(모)
	2015	그 형제의 여름	영길	초등학생	미국(부)
웹드라마	2015	오늘부터 하모니	아린 하리	고등학생	우즈베키스탄(모)
웹툰	2013~현재	엄마는 외국인	변기통	고등학생	프랑스(모)

## 제 6 장 연구 결과 및 논의

각 미디어 텍스트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연구 대상 미디어 텍스트 줄거리

장르	제목	줄거리
텔레비전 드라마	그 형제의 여름	1992 년 부산. 동생을 미워하던 동길이가 동생 영길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되면서 가족 사랑을 깨닫는 성장 드라마.
	깜근이 엄마	필리핀 혼혈 명근은 아버지의 재혼으로 새로운 가족과 환경에서 갈등을 겪는다. 새엄마 도순과 명근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가족 드라마.
영화	완득이	필리핀에서 온 친엄마의 존재를 알게된 완득. 엄마와의 재회, 복싱 연습 등 가족과 이웃을 통해 성장하는 완득이를 그린 영화.
	마이 리틀 히어로	뮤지컬 〈조선의 왕〉 주인공을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한 영광이. 하지만, 필리핀으로 재귀화 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결승 진출에 위기가 온다. 음악 감독과 영광이가 사회의 편견을 깨고 〈조선의 왕〉에 도전하는 성장 이야기.
	세리와 하르	세리는 베트남에서 온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 청소년이다. 그리고 하르는 한국에 온 이주 노동자이자 미등록 이주자의 자녀이다. 영화는 두 소녀를 통해 한국 사회 내 이주자 관련 문제 전반을 보여준다.
	샤방샤방 샤랄라	부모님, 동생 은수와 함께 살고 있는 초등학생 은진이는 명랑하고 공부도 잘 한다. 어느 날 같은 반 친구가 은진 엄마가 필리핀에서 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한다. 다문화 청소년 은진의 성장 이야기.
웹드라마	오늘부터 하모니	고등학교 보컬 동아리에 다문화 청소년 하리가 들어오게 되면서 갈등을 겪고, 아이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하며 성장한다.
웹툰	엄마는 외국인	한국인 아버지와 프랑스인 어머니 그리고 그들의 자녀 변기통의 일상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코믹하게 그린다.

## 제 1 절 다문화 청소년이 재현된 미디어 텍스트의 서사 분석

### 1. 다문화 청소년 캐릭터 특징: 인종과 성격

본 연구가 분석한 미디어 텍스트에 등장한 다문화 청소년 10 명 중 2 명만 백인 혼혈이었고, 나머지 8 명은 비백인 혼혈이었다. 인종은 사회적 구성물로서 절대적인 구성 요소나 특징을 갖지 않는다. 이전에 생물학적으로 정의되었던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피부색 및 외형의 특징을 상대적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비교적 밝은 피부색의 백인 혼혈과 그렇지 않은 비백인 혼혈로 나누고자 한다.

웹툰 <엄마는 외국인>의 주인공 변기통은 프랑스 출신의 백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 청소년이다. 웹툰에서 그는 밝은 피부색과 금발 머리카락, 그리고 파란색 눈동자를 가진 것으로 묘사된다.

반면 비백인 혼혈 다문화 청소년은 총 7 명이었다. 영화 <완득이>의 완득, 영화 <마이 리틀 히어로>의 영광, 단편 애니메이션 <샤방샤방 샤랄라>의 은진, 텔레비전 드라마 <명근이 엄마>의 명근은 모두 필리핀에서 온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 청소년이다. 영화 <세리와 하르>의 세리도 베트남에서 온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의 자녀이다. 또한 영화 <마이 리틀 히어로>에서 주인공 영광의 절친한 친구로 등장하는 성준이는 가봉에서

온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났다. 텔레비전 드라마 〈그 형제의 여름〉의 영길은 미국 출신의 흑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다.

인종을 기준으로 확실히 구별할 수 없는 다문화 청소년도 있었다. 웹드라마 〈오늘부터 하모니〉의 주인공 아린이와 하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어머니를 둔 혼혈인데, 텍스트에서 이들의 외적 특징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아린이와 하리가 나누는 대화를 통해 아린이는 한국인과 비슷한 생김새를 하고 있고, 하리는 이국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sup>12</sup>

이와 같이 비백인 혼혈인 다문화 청소년은 미디어에서 다수 재현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백인 혼혈 다문화 청소년은 단 하나의 텍스트에 등장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미디어가 다문화 청소년의 다양하게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과-재현과 과소 재현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디어 텍스트에 재현된 다문화 청소년은 대체로 온순하고 소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주변인들로부터 놀림 당하거나 차별 받을 때 그에 저항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마치 그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 듯 외면한다. 또래 아이들은 다문화 청소년의 이질적 외모를 놀림거리로 삼는다. 하지만, 다문화 청소년들은 아이들에게 어떠한 반격도 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영화 〈마이 리틀 히어로〉에서 영광이와 성준이는 어두운 피부색 때문에 같은 반 아이들로부터 ‘필리핀’, ‘아프리카’, ‘호나우딩요’ 등으로

---

<sup>12</sup> 하린: 난 어쩔 수 없습니다. 나, 티 나십니다. 나도 너처럼 생겼으면 한국인처럼 다녔습니다.



불린다. 아이들의 조롱 섞인 놀림에 반격을 가할 법도 하지만, 영광과 성준은 이에 저항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한다. 드라마 〈그 형제의 여름〉 주인공 영길이기도 비슷하다. 영길이는 학교에서 이름 대신 ‘블랙쥬’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아이들에게 괴롭힘 당한다. 하지만 영길이는 아이들의 괴롭힘에 저항하지 않고, 아버지나 학교 선생님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드라마 〈깜근이 엄마〉의 주인공 명근이도 학교 아이들에게 까무잡잡한 피부 때문에 ‘깜근이’, ‘아프리카 시킴둥이’라고 불리며 괴롭힘 당한다. 뿐만 아니라 흰 우유를 먹고 하예지라며 우유를 던지는 등 물리적 폭력도 당한다. 명근이는 자신의 이름은 “깜근이가 아니라 명근”이라고 적극 해명하지만, 더 이상의 행동은 취하지 않는다.

또한 웹드라마 〈오늘부터 하모니〉의 하리도 같은 반 아이들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차별 받을 때 침묵할 뿐,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 영화 〈세리와 하르〉의 주인공 세리도 동네 아이들로부터 국제결혼한 부모님에 대한 놀림을 당할 때 속으로 속상해할 뿐, 별다른 반격을 가하지 않는다.

다문화 청소년의 소극적인 성격은 이들의 처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다문화 청소년들은 주변의 또래들에게 자주 놀림의 대상이나 차별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주위 또래 집단에 속하고 싶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깜근이 엄마〉의 명근이는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축구를 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아이들은 명근이에게 축구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을 구실로 명근이에게 만화책을 가져오라는 등 협박하며 괴롭힌다. 명근이는 억울해하지만 어쩔 수 없기에 그 요구를 수용한다. 영화 〈세리와 하르〉의 세리도 주위 아이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에 친구 하르의

약점을 누설하는 등 그 집단 내부 구성원이 되기 위한 노력만 할 뿐 괴롭히는 아이들에 대한 저항은 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타인의 차별적인 발언이나 행위에 곧바로 반격하는 적극적 성격을 가진 다문화 청소년도 볼 수 있다. 단편 애니메이션 〈샤방샤방 샤랄라〉의 은진, 웹툰 〈엄마는 외국인〉의 기통이는 적극적인 성격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단편 애니메이션 〈샤방샤방 샤랄라〉에서 주인공 은진이의 같은 반 남자아이들은 은진이의 부스스한 머리카락을 ‘밧줄 머리’라 놀린다. 하지만 은진이는 이에 곧바로 반격한다. 뿐만 아니라, 은진이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으로 짓궂은 아이들을 선생님께 이르기도 한다.

또한, 필리핀에서 온 엄마나 동생 은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될 때, 은진이는 엄마와 은수를 대신해 변호한다. 예를 들어 “필리핀은 바다가 많으니 물고기만 먹냐”고 묻는 이웃에게 “제가 옛날에 가봤는데요, 잡채랑 비슷한 판숙이라는 것도 있고요, 아도보라는 것도 맛있어요. 그쵸, 엄마?”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웹툰 〈엄마는 외국인〉의 주인공 변기통 또한 외모가 다르다는 점 때문에 아이들로부터 놀림 받지만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 반격한다. 또한 은진이가 정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변기통 또한 차별 받는 태국 혼혈 친구를 대신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한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가 분석한 미디어 텍스트에 재현된 다문화 청소년 대부분은 자신들을 향한 차별적인 발언이나 행동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보다는 침묵을 유지하는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소극적인 성격은 타고난 기질뿐만 아니라 이들이 처한 소수자적 위치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다문화 청소년은 이질적인 외적 특성, 즉 혼혈인이기 때문에 놀림 당하거나 괴롭힘 당하고 있었다. 다문화 텍스트에 재현된 다문화 청소년의 인종적 특성을 살펴보면 1 명만 백인 혼혈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비백인 혼혈이었다.

## 2. 다문화 청소년 부모 캐릭터 특징: 인종과 성격

다문화 청소년은 ‘청소년’인 만큼 가정 내에서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안에서 주로 재현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의 인종과 성격 특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가 분석한 미디어 텍스트에 등장하는 다문화 청소년의 외국 출신 부모의 출신 지역을 살펴보면 필리핀 4 명, 베트남 1 명, 프랑스 1 명, 미국 1 명, 우즈베키스탄 1 명이 있었다. 또한, 외국 출신 부모는 미국에서 온 1 명을 제외하고 모두 여성이었다. 즉,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성으로 이루어진 부모가 대다수였다.

외국 출신 부모들은 헌신적이고 생활력이 강한 엄마로 재현되고 있었다. 또한 주눅들고 우울한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었다. 외국 출신 부모가 미디어에 직접 등장하지 않은 경우는 분석 과정에서 제외했다.

예를 들어, 영화 <마이 리틀 히어로>의 영광이 엄마는 필리핀에서 온 결혼이주여성인데 공장에서 일하며 홀로 생계를 꾸리고, 영광이를 키운다.

영광이 엄마는 필리핀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영광이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을 반대한다. 하지만 필리핀으로의 재귀화가 아들의 꿈에 걸림돌이 되자 그 상황을 타개해보려 노력한다.

영화 〈완득이〉에서 완득이 엄마도 필리핀에서 온 결혼이주여성이다. 완득이 엄마 이숙희는 완득이가 어렸을 때 집을 나가 식당에서 일하며 홀로 살아가던 중, 우연한 계기로 10 여년이 흐른 후 아들 완득이와 재회한다. 이숙희는 어린 아들을 두고 집을 나갔다는 점 때문에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된 완득이에게 반찬을 해주는 등 헌신적인 노력을 보인다. 또한 완득이 엄마 이숙희는 아들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는 등 완득이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보인다.

영화 〈세리와 하르〉에서 세리의 엄마는 베트남에서 온 결혼이주여성인데, 화학 공장에서 일하며 약품에 노출되어 둘째를 유산했고, 다리에 마비가 왔다. 세리 어머니는 슬픔과 좌절에 빠진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었다.

반면, 단편 애니메이션 〈샤방샤방 샤랄라〉의 은진 엄마는 필리핀에서 온 결혼이주여성으로서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었다. 웹툰 〈엄마는 외국인〉의 변소피도 명랑하고 활달한 성격이다. 하지만 이 두 명의 여성 모두 가정 내에서 육아와 살림의 주 담당자로서 헌신적으로 재현되고 있었다.

반면,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인 부모는 모두 남성으로서 소극적이고 이들은 사회적으로도, 가정 내에서도 주변부적 인물로 그려진다. 자녀 양육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는 극중 등장 시간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드라마 〈깜근이 엄마〉 주인공 명근이의 아버지는 극 전반부 교통사고 가해자로서 구치소에 수감되고, 후반부에는 명근이의 친모를 찾으러 필리핀으로 떠난다.

드라마 <그 형제의 여름>의 영길이는 양아버지 국진과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의 친부는 누구인지조차 다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영길이의 친부는 미군이었으며 흑인이었고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극중 한국인 아버지들은 어딘가 주눅들어 있고, 무능력한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미안해한다. 영화 <완득이>에서 완득이 아버지는 아내 이숙희와 재회하기 전까지 완득이의 주요 양육자였다. 그런데 아내 이숙희가 비판하듯, 그는 생계 유지에만 힘쓰고 그 외의 역할에는 소홀했다. 영화 <세리와 하르>의 세리 아버지도 비슷하다. 그는 세리의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딸에게 경제적 지원을 충분히 해주지 못해 미안해한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영화 <마이 리틀 히어로>의 영광이 아버지이다. 그는 영광이가 어렸을 때 가출한 아버지로서, 영화에는 한번 등장한다. 그마저도 영광이와 영광이 엄마의 필리핀 귀국을 종용하고자 함이었다.

반면, <그 형제의 여름>에서 동길 영길의 아버지이자 양육자인 최국진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 모두를 수행한다. 그는 한국의 중년 여성을 연상시키는 뽀글머리를 하고 있는데, 가정 내에서 요리도 도맡아 하는 등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한다. 웹툰 <엄마는 외국인> 변기통의 아버지는 위의 남성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무명 화가로서 고정적 경제적 수입원이 없지만, 그럼에도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게으름을 피우며 뻔뻔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이 웹툰이 코믹 장르라는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

### 3. 서사의 갈등 유형과 해결

#### (1) 가족 간의 갈등

우선 다문화 청소년에게 가족은 갈등의 원인이자 동시에 가족 간의 사랑은 그 갈등을 해결하고, 외부의 역경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된다. 특히, 대부분의 다문화 청소년은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엄마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는다. 다문화 청소년과 엄마와의 갈등에 대한 텍스트는 단편 애니메이션 〈샤방샤방 샤랄라〉, 영화 〈완득이〉, 텔레비전 드라마 〈깜근이 엄마〉가 있다. 형제 간의 갈등을 다룬 텍스트로는 텔레비전 드라마 〈그 형제의 여름〉이 있다. 각 텍스트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편 애니메이션 〈샤방샤방 샤랄라〉의 주인공 은진이는 엄마가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내적, 외적 갈등을 겪는다. 은진이는 밖으로 내색하지 않지만, 엄마를 닮아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다. 그리고 겉으로 엄마가 필리핀에서 왔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지만 마음 한편, 엄마가 필리핀에서 왔다는 사실에 대한 부끄러움을 갖고 있다. 엄마로 인한 외적 갈등은 은진과 친구와의 다툼에서 드러난다. 은진이는 은진 엄마가 필리핀에서 왔다고 놀리는 친구와 싸운다. 그리고 마침 지나가던 엄마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아이들의 싸움이 엄마들 간의 말다툼으로 확대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다. 그런데 이때 은진 엄마는 자신을 무시하는 언사를 쓴

학부모에게 자신의 모국어인 필리핀어로 대응한다. 평소 수더분하던 엄마의 모습만 봐오던 은진은 엄마가 자신의 언어로 주체적이고 당당하게 대응하는 모습에 놀라는 동시에 그런 엄마를 자랑스러워 한다. 은진이는 자기 엄마가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는 모습을 확인하며 내적 갈등에서 벗어난다. 은진이는 속으로 엄마를 부끄러워했던 마음 때문에 불편함을 느꼈는데, 엄마가 모국어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선 엄마를 향한 사랑과 자부심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이주 여성인 엄마로 비롯된 갈등을 다룬 텍스트도 있다. 영화 <완득이>에서 주인공 완득이에게 어느 날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어머니 이숙희가 등장한다. 완득이는 어머니와의 직접적인 갈등을 겪지는 않지만, 급작스럽게 등장한 어머니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는 등 내적 갈등을 겪는다. 오히려 외적 갈등은 완득이와 아버지 사이에서 나타난다. 완득 아버지는 완득이가 어렸을 때 집을 나간 이숙희에 대한 미운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숙희의 등장이 마냥 탐탁지 않다. 반면, 완득은 어머니와의 만남을 통해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차츰 쌓아나간다. 하지만 곧 완득 아버지와 완득 어머니는 서로에 대한 연민을 확인하고, 아들 완득이에 대한 사랑을 매개로 셋은 결국 재결합한다. 이렇게 영화 <완득이>는 가족 간의 헤어짐과 재결합을 그리며, 마지막에는 세 식구가 함께 살게 되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행복하게 끝난다.

드라마 <갯근이 엄마>는 다문화 청소년과 그의 한국인 새엄마 도순의 갈등을 다룬다. 그리고 명근이와 새엄마 도순은 각자 엄마, 새엄마와의 관계에 얽힌 상처가 있는 인물이다. 명근이의 새엄마 도순은 어린 시절 새엄마 밑에서

자란다는 것에 대한 상처가 있다. 주위 친구들로부터 ‘사생아’라고 놀림 받았던 도순은 그 상처의 아픔을 새엄마에 대한 반항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훗날 도순은 명근의 새엄마가 된다. 그런데 도순이 어린 시절 그랬던 것처럼 명근이도 새엄마 도순의 존재를 쫓겨나고 싶어 한다. 명근은 새엄마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한 반항심으로 짓궂은 행동을 일삼았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갈등은 드라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드라마 후반부에 도순은 새엄마를 다시 만나면서 자기의 어린 시절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명근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이후 도순은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는 명근을 대신해 맞선다. 이러한 도순의 태도 변화는 명근의 태도를 변화 시킨다. 그리고 결국 이 둘은 서로에게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며 화해한다. 그리고 새로 꾸린 가족 간의 사랑으로 이전의 상처를 치유한다. 이렇게 드라마는 새엄마 도순의 이해, 관용, 연민을 계기로 행복하게 마무리된다.

다른 한편, 드라마 <그 형제의 여름>의 주인공 동길이는 혼혈인 동생과의 갈등을 겪는다. 동길이는 아버지가 동생만 편애한다고 느껴 동생을 미워했다. 게다가 동길이 동생이 전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흑인 혼혈 영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댄스 대회 출전이 좌절될 위기에 처하자 동생에 대한 미움은 더욱 커진다. 그렇게 동길이는 동생 영길이의 존재를 못마땅해 하던 중, 우연히 자신과 영길이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되면서 동생과 아버지를 미워하던 마음을



누그러뜨린다.<sup>13</sup> 그리고 아버지가 동생을 편애한 이유를 이해하고, 가족 간의 사랑을 깨닫는다. 결국 서사의 표면적 주요 갈등은 동길이가 아버지, 동생과 함께 댄스 경연에 참가함으로써 봉합되고 행복한 결말을 맺는다. 이 드라마의 실질적 주요 갈등은 가족 구성원 간의 오해인데, 이는 가족 사랑으로 해결된다.

요약하자면,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텍스트는 대부분 다문화 청소년 가족 간의 갈등을 주로 그려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다문화 청소년과 어머니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대부분 다문화 청소년의 어머니가 결혼이주여성이기 때문에 결혼 이주여성을 둘러싼 문제들이 재현되고 있었다. 반면, 다문화 청소년과 한국인 아버지와 관계는 매우 제한적으로 재현되었다. 한국인 아버지는 청소년과 자신의 배우자 간의 갈등 해결에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미디어 텍스트가 다루는 다문화 청소년의 가족 간 문제를 통해 우리는 결혼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정의 문제를 읽어낼 수 있다.

## (2) 이질적인 외모로 인한 갈등

미디어 텍스트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다문화 청소년들은 피부색 차이를 비롯한 이질적인 외모 문제로 내적, 외적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런데 피부색 문제는 서사의 주요 갈등이라기 보다는 부수적 갈등으로 다루어진다. 하지만

---

<sup>13</sup> 동길리와 영길이는 어머니가 같지만 아버지가 다른 이복형제이다. 동길은 아버지(최국진)의 친아들이고, 영길이의 아버지는 동네 근처 미군 부대의 군인이다. 형제의 어머니는 영길이를 출산하고 집을 나갔으며 현재 연락이 안 닿는 상태이다.

피부색의 문제는 반복적으로 재현되며 다문화 청소년을 둘러싼 의미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는다. 그런데 서사에서 외모로 인한 갈등은 해결되지 끝내 않고, 미디어 텍스트는 대부분 문제를 보여주는 데에 그치고 있었다. 또한 주인공이 청소년인 만큼 이질적 외모 때문에 학교의 또래 아이들과의 갈등이 자주 재현되었다.

다문화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피부색이 좀 더 까맣거나 밝다는 점 때문에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백인 혼혈과 그 외의 혼혈 청소년들이 겪는 갈등의 양상에는 차이가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외적 차이가 뚜렷하게 날 수 있는 흑인이나 백인 혼혈뿐만 아니라, 비교적 동질적 외모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아시아계 혼혈 다문화 청소년 또한 피부색 때문에 주위로부터 놀림 당한다.

구체적으로 피부색 때문에 갈등을 겪는 등장인물 6 명 중 3 명은 필리핀 혼혈이었고, 나머지는 각각 프랑스(백인)혼혈, 미국(흑인) 혼혈, 가봉(흑인) 혼혈이다. 분석 대상 텍스트 총 8 개 중 예외적으로 영화 <완득이>, <세리와 하르>, 웹드라마 <오늘부터 하모니>는 서사에서 피부색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각 텍스트가 다루고 있는 이질적 외모에 관한 갈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드라마 <그 형제의 여름>에서 동길의 친구를 비롯한 학교 아이들은 흑인 혼혈인 영길이를 '블랙쥬'라 놀리고, 괴롭힌다. 영길이의 이복 형인 동길은 동생이 괴롭힘 당해도 이를 방관한다. 동길이는 피부색이 까맣기 때문에 놀림 당하는 동생의 존재로 인해 자신의 일이 그르쳐졌다고 생각한 후 동생 영길이를 더욱 미워한다. 이에 동길이는 영길이에게 "한국사람처럼 하얘지라! 얼굴도 손도 발도 다 하얘지라! 그랄거 아니면은 앞으로 나한테 형님이라 부르지도 말고, 말도 시키지 마라! 알았나!" 소리지른다. 영길이는 형의 말을 듣고 하얘지기 위해 지우개로 자기 피부를 문지르고, 미백 크림을

사서 바르기도 한다. 그러나 드라마의 주요 갈등은 봉합되는 것과 달리 이 피부색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문제만 드러낸 채 그대로 끝난다.

드라마 〈깜근이 엄마〉의 주인공 명근이도 피부색 때문에 갈등을 겪는 주인공의 모습이 자주 드러나는데, 〈그 형제의 여름〉과 같이 서사 내에서 피부색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전학 간 서울 학교에서의 첫날, 아이들은 명근이를 본 후 선생님에게 “선생님, 재 한국말 할 줄 알아요?”라고 묻고선 “깜둥이가 어떻게 한국 사람이에요!”라고 말한다. 또한, 명근이는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어울려 축구를 하고 싶어 하지만 매번 거절당한다. 아이들은 축구를 미끼로 명근이에게 돈을 빼앗는 등 협박을 한다. 자신을 “깜근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에게 “내 이름은 깜근이가 아니고 명근이다!”라고 외치면서도 함께 축구를 하고 싶어 아이들의 협박에 순순히 응한다.

이 밖에도 아이들은 축구에 끼워 달라는 명근이에게 “가서 목욕이나 해! 깜둥이 주제에 드럽게!”라고 외치는가 하면, 하교하는 명근이에게 우유를 던지면서 “아프리카 시کم둥이 초코파이 말랑말랑! 야, 재 필리핀 사람 맞지? 재 깜둥이 맞잖아!”라고 말하며 놀린다. 또한 한 아이는 명근이를 생일파티에 초대한 후, 우유로 채운 욕조에 명근이를 빠뜨리기도 한다. 속상한 명근이는 〈그 형제의 여름〉 영길이가 그랬던 것처럼 문제의 원흉이 되는 어두운 피부색을 때밀이 수건으로 박박 문지른다. 그러나 피부색으로 인한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 마무리 된다.

단편 애니메이션 〈샤방샤방 샤랄라〉에서도 주인공의 이질적 외모는 어머니가 필리핀 사람이라는 혼적으로서 중심 갈등의 간접적 원인이 된다. 주인공 은진이는 필리핀 출신 엄마로부터 물려 받은 곱슬 머리카락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 받곤 한다. 또한, 이웃 어른이 은진이를 두고 “애는 피부가 하얗서 다행이야, 그치 언니?”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은진이는 자기 보다

어두운 피부색을 걱정하며 엄마에게 “그럼 은수는 어떡해?”하고 걱정한다. 주위 사람들이 자신의 피부색과 머리카락을 바라 보는 시선은 은진으로 하여금 외모에 대한 고민을 촉발시키고, 이는 엄마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위의 텍스트와 다르게 은진은 엄마가 당당히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보며 엄마를 부끄러워했던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면서 내적 갈등을 해소한다. 다문화 청소년 은진의 인물 변화는 은진이가 친구들이 놀려 뭉고 다녔던 곱슬머리를 자랑스럽게 늘어뜨리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반면, 영화 <마이 리틀 히어로>는 피부색 문제가 서사의 중심 갈등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두 편의텔레비전 드라마와 다르게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된다. 필리핀 혼혈 영광이는 어두운 피부색 때문에 뮤지컬 <조선의 왕> 주인공을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 결승 진출이 좌절될 위기에 놓인다. 영화에서 뮤지컬 <조선의 왕>은 ‘한국 문화 대표 상품’으로서 정부로부터 대규모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인데, 방송사 관계자를 비롯한 잇선의 눈에 이국적 외모의 다문화 청소년이 뮤지컬 주인공 ‘조선의 왕’을 연기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영광이가 필리핀으로 재귀화 예정이라는 것을 빌미 삼아 영광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을 막으려 한다. 결승 진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영광이는 좌절하지만, 곧 조력자 음악감독의 설득과 노력으로 영광이는 결국 결승에 진출한다. 그리고 영광이는 오디션 최종 우승자가 되며 당당히 ‘조선의 왕’이 된다.

웹툰 <엄마는 외국인>의 백인 혼혈 주인공 또한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어려서부터 이질적 외모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목 받는다. 주인공 변기통은 프랑스에서 온 백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 청소년인데, 금발에 파란색 눈동자, 밝은 피부색을 가졌다. 이러한 외형적 특징 때문에 주인공은 사람들의 시선의 대상이 되었고, 쉽게 ‘외국인’이라 오해 받았다. 이 때문에 변기통은 심한 내적 갈등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는 자신을 놀리는 친구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시즌 1, 8 화).

그러나 중학생이 된 기통이는 주목 받는 것을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성공’을 통해 사회의 시선을 극복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갈등 해결이라고 할 수 없다. 그보다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하나의 예방책이라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 기통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한국에서 프랑스로 입양된, 생김새만 ‘한국적’인 프랑스인 장관이 ‘한국인’인 듯 보도하는 방송 뉴스 시청이다. 이 뉴스를 본 후, 기통이는 자신도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 받고, 사람들과 무시 받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 성공과 검정색 머리카락이 중요하다고 깨닫는다. 이후 피부색으로 인한 내적, 외적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자신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 다짐한다. 또한 검정색으로 머리카락을 염색해보기도 한다.

그런데 변기통은 외적 특징 때문에 주위 또래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기도 하고, 특징을 장점으로 살리자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기통이는 자신에게 반한 전학생에 대해 속으로 ‘또래의 다른 남학생과 다른 외모와 분위기가 맘에 든 모양’이라 짐작한다(시즌 2, 30 화). 또 친구이자 태국 혼혈인 태식이는 기통이에게 "너 좋겠다. 그래도 인기 많잖아(시즌 2, 73 화)"라고 말하며 부러워한다. 기통이의 친구 태식이는 미디어 텍스트의 다른 혼혈 청소년들과 비슷한 갈등을 겪는다.<sup>14</sup>

---

<sup>14</sup> "똑같이 사람들의 시선을 받더라도 넌 한눈에 공부하러 왔나 생각해도 난 한국에 일하러 왔나 한단 말이야.", "근데 앞으로가 걱정이야. 한국은 서양인에 대한 인식이 좋으니까 그렇게 불이익 없을거야. 하지만 나는 취업은 어떻게 할지, 밥은 먹고 살 수 있을지 결혼은 할 수 있을지 전부 걱정이야."(시즌 2, 73 화)

## 제 2 절 다문화 청소년을 둘러싼 가족 담론: 가부장적 전통 가족

위와 같은 서사 분석 과정에서 확인한 것들은 사회적 담론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비판적 담론 분석의 담론적 실천 층위와 담론적 실천 층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본 연구가 분석한 미디어 텍스트에서 가족 간의 갈등이 자주 반복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한 서사 구조 분석을 통해 가족 간의 갈등이 가족의 사랑과 이해를 통해 해결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다문화 청소년의 가족은 헌신적인 어머니와 가부장적인 아버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청소년을 둘러싼 가족의 의미와 그에 관련된 사회적 담론이 무엇인지 고찰할 수 있다. 여기서는 미디어 텍스트 구조의 내적 분석에서 나아가 텍스트와 사회의 담론 및 권력 체계와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이는 비판적 담론 분석의 담론적 실천과 사회적 실천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한국에서의 국제결혼 폭발적 증가 배경이 개인 간의 친밀성의 문제에서 시작됐기 보다는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인 맥락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다. 2000 년대 중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붐이 일어났다. 지방자치단체는 총각들의 결혼을 적극 지원했다.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용 필요한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하고자 예산 마련해 결혼 통합 인구 유입에 나섰다. 다시 말해 국제 결혼 장려는 농촌의 저출산 및 고령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었다.

이는 통계로 확인되는데, 1993 년부터 2016 년까지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를 살펴볼 때 2000 년대 중반, 가장 많은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를 볼 수 있다. 외국인과의 혼인 중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는데, 특히 2000 년대 중반에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절대적 다수를 차지한다.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동남아시아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의 대부분은 한국 사회에서 ‘주변적’ 남성들이다. 김명혜(2012)는 국제 결혼 중개업자와 국제 결혼을 한 한국인 남성을 인터뷰 방법으로 연구했는데, 결혼중개업자의 한국인 남성 고객들은 대다수가 저소득 노동자나 자영업자들이라고 했다.

〈표 5〉. 한국인 및 외국인과의 혼인 비교<sup>15</sup>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한국(남) +외국(여)	6,945	9,684	10,698	18,750	25,105	30,719	29,665	28,580	28,163
한국(여) +한국(남)	4,660	4,839	4,504	6,025	9,535	11,637	9,094	8,980	8,041
계	11,605	14,523	15,202	24,775	36,640	42,356	38,759	37,560	36,204

<sup>15</sup> 통계청(2016). 2016 년 혼인·이혼 통계. URL: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 bmode= read&aSeq=359596](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 bmode= read&aSeq=359596) 자료  
재구성

즉, 이들은 한국 사회 내의 권력 체계 안에서 하위를 구성하는 남성으로서 소위 결혼 ‘조건’들을 갖추지 못한 남성들이다. 국내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이들은 한국 밖에서 배우자를 찾는다. 결국 한국의 주변부 남성들은 국제결혼을 통해 “전통적 가부장제 가족의 구조를 유지”(김명혜, 2012)하고, “자신들의 권력이 머무를 영역”(이근무, 김진숙, 2015)을 확보한다. 덧붙여, 김현미(2006)는 사회 내의 낮은 위치에 있는 남성들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 국적과 수용국을 상징권력으로 변화시킨다고 했다. 이로써 그는 사적 공간인 가정 내에서 통치자로 군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한국 남성의 모습을 정희진(2017)은 ‘식민지 남성 문화’ 개념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는 여러 문학 작품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남성의 문화를 고찰하는데, 식민지 남성은 강대국의 ‘보편적’ 남성과 자신을 동일시 하는 동시에 국내에서 여성을 통치하고자 한다. 이를 본 연구의 논의로 가져오면, 사회에서 배제되고 억압 받던 남성들이 자신의 가정 내에서는 지배자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차선택으로 국제 결혼을 선택한 한국인 남성들은 가정 내에서 권위적이고 가부장적 남성으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남성들이 배우자를 외국,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찾고자 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성적 욕구 충족, 가사 분담, 농사일 분담, 노부모 봉양 등 일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김명혜, 2012). 또한, 이근무와 김진숙(2009)는 국제결혼한 남성 10 명의 생애사 연구를 했는데,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들에게서 전통 사회의 보편적 아버지의 이미지를 고수하거나 사회구조적 배경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소극적 양육자의 모습을 함께 읽었다. 특히, 한국인 남성은



가정 내에서 자신을 경제적, 도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다고 한다. 이는 본 연구 대상으로 삼은 텍스트에서도 드러났다. 그 예로써 영화 <세리와 하르>의 주인공 세리 아버지는 딸 뒷바라지를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꾸준히 드러냈다. 영화 <완득이>에서도 완득이 아버지는 경제적 부양에만 힘쓰는 양육자 역할에 몰두하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들은 재생산 능력과 가족 부양에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 나타난다. 이는 곧 가부장적인 전통 가족 제도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역할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권력 체계는 법과 제도라는 담론을 통해서 실천된다.

예를 들어, 국적법의 제 6 조 제 2 항에 4 호 해당되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임신한 상태라 양육할 예정인 경우 한국으로의 귀화가 가능하다. 한국인을 양육하는 결혼이주자는 가장 빠르고 쉽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등록 이주민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고자 한다면, 그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자' 또는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하였는데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 4 조 참조)

이와 같은 법과 제도에 대해 학자들은 한국의 다문화주의, 다문화 정책의 맹점을 짚어내 비판한다. 김현미(2008)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아이의

‘엄마’의 자격으로서만 공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고, 아이를 낳지 않은 외국 여성은 결혼이주자 여성의 주체로 설정될 수 없다면서 한국 내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권리는 한국의 가족 유지 및 한국인 재생산에 얼마나 일조했는가에 따라 주어진다고 비판했다. 황정미(2011) 또한 이주 여성의 시민권, 즉 체류자격은 매우 의존적이고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다. 양현아(2013)는 이러한 법적 토대로 만들어진 한국의 다문화 정책이 “가족주의적 국민화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한국인 중심 가부장적 다문화주의’라고 보는 것이 명확하다고 했다. 김영옥(2007) 또한 정부 정책은 결혼이주여성들을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 주체로 보지 않고, 한국 남성의 ‘아내’, 예비 한국 국민의 ‘어머니’로서만 인정한다면서 이는 결국 동화를 위한 것일 뿐 다문화주의의 본질인 다양한 시민 주체의 ‘인정’에 벗어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텍스트의 분석 과정에서 현신적이며 주 양육자 역할을 수행하는 어머니와 가정 내에서 가부장적이고 양육에 소극적인 아버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국제결혼이 급증한 사회적 요인과 맥락 아래에서 다문화 가족이 어떻게 가부장적인 전통 가족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미디어에 어떠한 방식으로 재현되는지 고찰하게 한다.

### 제 3 절 다문화 청소년을 둘러싼 한민족 담론

다문화 청소년은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있는 한국인이다. 그런데, 서사 속에서 이들은 같은 한국인이 아닌 타자로 여겨지고 있었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은 피부색 차이 같은 외적 특징 때문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차별 받고 있었다. 하지만 미디어는 궁극적으로 다문화 청소년도 우리와 같은 한국인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즉, 다문화 청소년이 우리 안의 타자이며 민족 담론 안으로 적극 포섭되는 대상이다. 하지만 한민족 담론의 이러한 확장성은 인종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인해 저지된다. 이렇게 다문화 청소년은 담론들의 움직임, 인종적 권력 체계 내에 위치한 하위주체로 존재한다.

다음에서는 역사적으로 한민족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고 확장되어 왔는지 그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담론, 사회적 맥락과 텍스트를 오고 가며 분석하는 것은 비판적 담론 분석의 담론적 실천과 사회적 실천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 1. 한민족의 확장적 움직임

한국에서 민족 개념이 어떻게 구성되고 자리잡았는지 역사의 흐름과 함께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민족은 ‘한민족’이라고 불린다. 설동훈(2014)은 한국에서 민족 개념이 19 세기 후반, 20 세기 초에 들어서야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봤다. 윤인진(2007)은 이 시기 형성된 민족주의 담론을 저항적 민족주의 담론으로 개념화했다. 당시 민족주의는 일제 식민주의에 저항하면서 스스로를 공고히 했다. 이것은 식민지 조선인의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기도 했다. 특히, 신채호는 저항적 민족주의를 주도하는 인물로서 “혈통-문화주의에 입각한 민족주체성을 강조”(윤인진, 2007, 16 쪽) 했다. 광복 이후에도 저항적 민족주의 담론은 유지되었다. 왜냐하면 민족국가로서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혈통과 문화를 중시하는 역사적, 민족적 정통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한민족 개념이 혈통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순혈주의와 함께 단일 민족 신화가 공고히 이어져왔다. 단군의 혈통으로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있다는 ‘신화’는 여전히 건재하다. 특히, 한국의 경우 ‘한민족’ 집단 내부의 구성원 간 외형적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민족의 동질성, 순혈성은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졌다. 때문에 ‘혼혈’, ‘혼혈인’은 민족의 순수성을 해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혼혈인은 한국인과 이민족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한다. 앞의 이론적 논의에서도 살펴봤듯이 한국에서의 ‘혼혈’, ‘혼혈인’은 부정적인 존재였으며 이들을 비하하는 표현들(예를 들어 ‘튀기’, ‘잡종’ 등)도 존재한다.

그런데, 설동훈(2014)이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의 ‘혼혈’ 및 ‘혼혈인’은 혈통을 중심으로 한다가 보다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확히는 가시적 외적 차이, ‘인종’을 중심으로 한다. 예를 들어, 한국계 중국인(조선족)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혈’로 여겨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와 비교했을 때 외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혼혈인의 범주는 국적과 무관하며, 민족-인종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김혜인(Kim, 2016)은 한국에 거주하는 흑인 혼혈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해 연구했다. 그의 연구 참여자의 말을 통해 한국에서 ‘한국인’은 외형적 차이에 의해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 참여자 조(Zoe)는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혼혈인 혹은 다인종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를 흑인, 한국 여성으로 정체화하는 것과 상관 없이 한국 사회가 나를 미국인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한국어를 한 마디도 못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교포들(한민족)보다 더 많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 그러나 교포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국인처럼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인으로 받아들여진다.”(p.50)

위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민족은 문화적 공동체로서 공통된 혈통을 기반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일본의 식민지 아래 이러한 민족, 민족주의 담론은 저항적 성격을 띠며 공고히 자리 잡았고, 이는 ‘단일민족신화’와 같은 형태로 존재한다. 그런데, 혼혈인은 이러한 민족 개념에 흠집을 내는 존재이며 기존의 민족 개념이 ‘혈통’을 중심으로 한다면, 동질적 외형인 기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렇게 이질적인 외모의 혼혈 한국인은 ‘한민족’으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한민족은 전략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오고 있다. 이는 1999 년 제정 및 실행된 재외동포법의 탄생과 이후의 변화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다. 1999 년 재외동포법이 제정 및 실행되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정 이유는 국제화 및 세계화의 흐름 아래 국가 경제 이윤 확대를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이중국적을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sup>16</sup> 재외 동포는 크게 둘로 나뉘는데 첫째는 재외국민으로서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지만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이고, 둘째 외국국적동포는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의 직계 가족을 의미한다. 이때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는 “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재외 동포 중 실리콘 벨리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은 재외국민이고, 한국계 미국인, 조선족, 고려인 등은 외국국적동포이다.

그리고 한국의 인구 부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인구 확보의 문제가 중요해졌고, 이에 따라 결혼이주민이 적극 수용되기 시작했다. 앞서

---

<sup>16</sup> “지구촌시대 세계경제체제에 부응하여 재외동포에게 모국의 국경문턱을 낮춤으로써 재외동포의 생활권을 광역화·국제화함과 동시에 우리 국민의 의식형태와 활동영역의 국제화·세계화를 촉진하고, 재외동포의 모국에의 출입국 및 체류에 대한 제한과 부동산취득·금융·외국환거래 등에 있어서의 각종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모국투자를 촉진하고 경제회생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키며, 재외동포들이 요구하는 이중국적을 허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병역, 납세, 외교관계에서의 문제점과 국민적 일체감 저해 등의 부작용을 제거하면서 이중국적 허용요구에 담긴 애로사항을 선별 수용함으로써 모국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영주할 목적으로 해외에 이주한 동포중 상당수가 모국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고립감과 모국에서의 경제활동 제약, 연금지급정지등을 걱정하여 거주국의 국적취득을 꺼리고 거주국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정착하여도 모국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거주국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유.)

살펴봤듯이 2000 년대 중반 국제결혼이 적극적으로 장려되면서 다문화 가족도 함께 증가했고, 다문화 가족과 관련된 법안과 정책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맥락 아래 한민족은 다문화 청소년을 ‘우리’라고 호명하며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것은 한민족의 존속을 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 내의 인종주의는 그 움직임을 저지한다. 다음에서는 인종주의가 민족 담론의 확장적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 2. 극복해야 할 인종주의

한국의 민족 담론은 다문화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포섭하려 하지만, 이를 저지하는 이데올로기로 인종주의가 작동하고 있다. 인종주의란 ‘인종’적 차이를 근거로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을 차별하는 언행을 뜻한다. 그런데 여기서 ‘인종(race)’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구성물이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인종은 “사람의 씨” 혹은 “인류를 지역과 신체적 특성에 따라 구분한 종류.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이 대표적”으로 정의된다<sup>17</sup>. ‘지역’은 국적, 그리고 ‘신체적 특성’은 생물학적 특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보통 인종을 분류할 때 신체적 특성은 곧 피부색의 차이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매우 자의적인 선택에 따른 결과이다. 황인종은 어떤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질문해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누런 빛의 피부색과 검정색 눈동자,

---

<sup>17</sup>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URL: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으면 모두 황인종일까? 이러한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인종 개념의 허구성을 드러낸다. 이에 대해 박경태(2009)는 인종이 신체적 특징에 기초하여 사회적으로 규정된 집단이라고 하면서 각 사회에 따라 인종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인종 개념이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유럽의 백인들이 다른 대륙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럽 바깥의 사람들을 만나기 전까지 유럽인들은 자신들이 백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지만 새로운 영토에 진출한 백인은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에 살고 있던 타인과 대비하여 자신을 ‘백인’으로 정체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백인’을 우월한 존재로 의미화하며 자신들과 신대륙의 거주민의 신체적 차이를 차별의 근거로 삼았다. ‘유색인’들은 애초부터 열등한 집단이기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 ‘백인’은 문명화된 주체이다. 이렇게 근대 유럽 백인들은 자신들의 영토와 자원 착취를 정당화 하기 위한 논리로 인종주의를 동원하였다. 인종주의는 외부로 향해 유럽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민족주의와 밀접히 결합되어 민족 구성원의 우월감을 고취시키고 결집시켰다(박경태, 2009; 전규찬, 200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젠더, 계급과 같이 인종의 문제도 결국 권력 체계에 기인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가 분석한 미디어 텍스트에 재현된 다문화 청소년들 또한 인종주의에 근거한 문제를 겪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피부색 문제로 내적, 외적 갈등이 재현되었다. 여기서 피부색의 문제는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어두운’ 피부색의 문제이다. 이들은 까무잡잡한 피부색 때문에



주변인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했다. 이는 노골적인 언어적 표현을 통해 드러났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한국에서 ‘까만’ 피부를 업신여기는 이러한 인식 체계는 어떻게 형성 되었을까? 인종주의가 근대 서구의 식민 지배국가에서 비롯되었는데, 식민지 한국은 어떻게 이러한 인식 체계를 흡수하였는가? 즉 ‘같은’ 황인종의 지배를 받은 한국에서 어두운 피부색이라는 기표가 어떻게 기호, 열등한 것으로 의미화 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피부색과 인종을 연관 지어 인식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1876 년 강화도 조약 이전까지 '우리'와 '타자'인 오랑캐를 구별할 때는 유교적 예를 지키는지 여부가 중요했을 뿐, 피부색이 기준이 중요하지 않았다(이희은, 2009). 또한, 1876 년 강화도 조약 이전까지는 인종 혹은 인종차별도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선이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과 조우하며 인종과 피부색 차이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았다.

19 세기 중반 이전까지만 해도 조선은 중화문명권내에 속했다. 당시에는 유교문명이 문명의 기준이었기에 이를 수호하는 것이 중요했다. 반면, 유교 문명 밖의 서양은 야만적이었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일본이 1860 년대부터 서양을 문명이라 부르며 유교문명권에 변화가 시작되었다. 일본의 문명개화론자들은 서구를 문명으로 등치 시키고, 동양은 반(半) 문명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조선의 1876 년 개항 이후 서구 근대문명의 유입과 함께 맞물려 급속도로 퍼졌다(정용화, 2004, p. 35~38).

여기에는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이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어, 1895 년 유길준은 『서유견문』에서 황색인, 백색인, 흑색인, 호색인, 적색인으로 구분하여 소개 하였다(하상복, 2012). 이후 1897 년 6 월 24 일자, 9 월 11 일자 『독립신문』의 논설을 통해서도 당시 인종에 대한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흑인들은 가죽이 검으며 털이 양의 털 가치 곱슬 곱슬해야 턱이 내 밀며 코가 넓적 한 고로 동양 인종들 보다는 미련 하고 흰 인종보다는 매우 튼 한지라...백인종은 오늘날 세계 인종 중에 제일 영민 하고 담대한 고로 온 텃하 각국에 모도 퍼져 차차 하동 인종들을 익이고 토지와 초목을 차지하난 고로 하동 인종중에 바인종과 셋겨 백인종의 학문과 풍속을 배화 그 사람들과 갖치 문명 진보 못 하는 나라에난 토종이 백인종의 학문과 개화를 배호지 안난 고로 몇 천 만명 잇던 인종이 이백년 아래로 다 죽어 없섯지고...”<sup>18</sup>

“흑인들은 가죽이 검으며 털이 양의 털 갖치 곱슬 곱슬 해야 턱이 내 밀며 코가 넓적 한 고로 동양 인종들 보다는 미련하고 흰 인종보다는 매우 튼 한지라...”<sup>19</sup>

조선 지식인들은 근대서구 문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유교 비판을 심화했다. 물론, 이에 대항하는 전통 유학자들도 존재했으나 중화 제국의 쇠퇴와 메이지 일본의 융성이 명확히 대조되며 서구 근대 문명이 보편적

---

<sup>18</sup> 『독립신문』 1897 년 6 월 24 일 논설. 하상복(2012, 537 쪽)이 직접 인용한 원문을 한글 표기로 바꾸었음.

<sup>19</sup> 『독립신문』 1897 년 9 월 11 일 논설. 하상복(2012, 537 쪽)이 직접 인용한 원문을 한글 표기로 바꾸었음.

문명으로 자리 잡았다(정용화, 2004). 이와 같이 서구가 착취와 권력을 위해 고안한 인종주의가 동아시아 조선에 아무런 비판적 검토 없이 그대로 수용되었다.

이후 개화기를 지나 일제 식민지배기에 접어들어 서구를 향한 동경 및 서구 중심의 인식 체계는 더욱 확고히 자리잡았다. 이 인식 체계에는 근대 한국인의 인종 개념도 포함된다. 식민지 조선은 식민지배국 일본에 강한 저항적 인식을 갖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서구 문명을 수용해 부국강병을 이룬 것을 하나의 모델로 삼았다. 그리고 이는 “백인-황인-흑인(하상복, 2012)”의 인종 위계화로 이어진다. 조선인의 눈에 일본인, 즉 황인은 흑인보다 문명화 된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명화된 황인도 결국 본질적으로 서구화된 황인을 뜻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식민지의 조선인은 서구 백인처럼 되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았다. 그리고 서구는 곧 미국으로 치환되기에 이른다.

한국에서 백색은 곧 미국을 뜻한다. 한국의 근대화는 서구화를 의미했지만 그 구체적인 대상은 미국이었다. 근대화를 지향한 한국인에게 정체성의 동일시 대상은 황인종 일본이 아닌, “세계 제일 인종'인 백인, 그 중에서도 미국인”이었다(유선영, 1997 98 쪽). 억압적이고 폭력적이었던 일본에 반해 미국의 프로테스탄트 선교활동은 설득,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해 한국에게 제시적 모방의 사례로 유도하였다(Maunier, 1949 p.91~95: 유선영, 1997 재인용). 또한 해방 후에 미군 점령 시기를 거치며 백색, 즉 미국에 대한 열망을 더욱 강해졌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다문화 청소년을 재현하는 미디어를 통해 한국에서 다문화 청소년은 한민족으로 적극 포섭되는 동시에 위계적 인종주의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완전한 ‘우리’도 아니고, 완전한 ‘타자’도 아닌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인구 감소가 점차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민족 담론은 그 존속을 위하여 다문화 청소년을 전략적으로 호명한다. 그러나 피부색과 같은 외모가 한민족 정체성의 중요한 기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외국인’으로 보이는 다문화 청소년은 외부인으로 분류되고 배제된다.

예를 들어, 미디어 텍스트는 서사 속에서 다문화 청소년이 차별 받는 것을 통해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인종주의 이데올로기를 드러낸다. 그리고 텍스트의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다문화’ 사회 한국에서 위계적 인종주의 이데올로기는 극복해야 할 것을 요청한다. 하지만, 동시에 미디어는 다문화 청소년의 주체성을 드러내기 보다는 차별 받는 약한 존재로 정형화 하면서 이들을 하위 주체로 의미화 하고 있다.

## 제 7 장 결론 및 제언

### 제 1 절 연구의 요약과 의의

본 연구는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의 새로운 시민 주체라고 볼 수 있는 다문화 청소년의 미디어 재현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다문화 청소년이 중심 인물로서 내러티브를 이끌어가는 미디어 텍스트의 서사 구조를 분석하고, 텍스트를 둘러싼 사회적 담론을 고찰함으로써 다문화 청소년이 어떠한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이들을 둘러싼 권력 관계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 하에 다문화 담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5 년부터 2017 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문화 청소년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미디어 텍스트를 선정하여 텍스트 분석과 담론 분석을 시도했다. 총 8 개의 텍스트가 연구 대상으로 선정 되었으며 세부 장르로는 장편 영화(3 편), 단편 애니메이션(1 편), 텔레비전 드라마(2 편), 웹드라마(1 편), 웹툰(1 편)이 있었다.

텍스트 분석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서사 분석의 계열체 분석 차원에서 다문화 청소년과 부모를 개인별로 성격과 인종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은 대다수가 비백인 혼혈로서 온순하고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을 향한 차별적인 언행에 대해 저항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다문화 청소년의 외국 출신 부모 8 명 중 7 명이 여성이고, 1 명만 남성이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필리핀 4 명, 베트남 1 명, 우즈베키스탄 1 명, 프랑스 1 명, 미국 1 명이었다. 이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외국 출신 부모가 대부분 결혼이주여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헌신적이고 생활력이 강한 엄마이자 아내로 재현되고 있었다. 다문화 청소년의 아버지는 한국 사회의 하위계급에 속하는 주변부적 남성으로 그려지고 양육 문제에 있어 소극적이었다. 또한 이들은 상대적으로 극중 등장 비중이 적었으며 서사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서 한 발짝 물러나있었다.

미디어 텍스트가 다루는 주요 갈등의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가정 내의 갈등이 있었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과 어머니 사이의 갈등이 두드러졌다. 드라마 <깜근이 엄마>는 주인공 명근이와 한국인 새엄마 간의 갈등을 다루었지만, 그 외 청소년과 결혼이주여성 어머니 간의 갈등을 다룬 텍스트는 이주여성 어머니와 다문화 청소년의 갈등을 다루었다. 여기서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인 아버지는 이 둘 사이의 갈등 전개 과정에서 별 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

둘째, 미디어 텍스트의 다문화 청소년은 이질적인 외모 때문에 내적, 외적 갈등을 겪고 있었다. 특히 비백인 혼혈 청소년은 어두운 피부색 때문에 주위 포레 및 어른들로부터 차별적인 발언을 계속해서 들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 청소년의 이질적인 외모는 이들을 타자화 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다문화 청소년은 주변인들로부터 자주 ‘외국인’으로 간주 되었기 때문에 다문화 청소년은 자신이 ‘한국인’임을 계속해서 증명해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피부색으로 인한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 서사가 종결되었다. 이와

같은 반복적 재현은 다문화 청소년이 타자화 되고 차별 받는 존재로 정형화하는 데 바탕이 되고 있었다.

위와 같은 구체적 텍스트 분석 결과와 한국의 사회적 담론을 오가며 분석한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을 둘러싼 가족 담론은 한국의 가부장적 전통 가족 담론이다. 미디어에 재현된 다문화 가족 구성원은 한국의 전통 가부장제에 부합한 특징을 갖고 있었다. 다문화 청소년의 아버지인 한국인 남성은 가부장적이고 공적 영역에 관련된 일에 주로 관여하며, 결혼이주여성인 어머니는 가정, 즉 사정 영역 내에서 아내와 며느리 그리고 엄마로서 역할하고 있었다. 우리는 가부장제에 기반한 전통 가족 담론 안에서 다문화 가족이 구성되었으며 그 안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존재와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농촌 지역 및 저소득층의 남성들은 전통 가부장제에 기반한 가정을 꾸리고 싶지만 한국인 배우자를 찾지 못해 차선택으로 국제 결혼을 선택한다. 이러한 형태의 국제결혼은 2000 년대에 접어들어 급속히 증가했다. 이렇게 형성된 한국의 다문화 가정은 개인의 친밀성 차원에서 이루어진 혼인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지원과 하위 계급 한국 남성의 전략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혼인을 바탕으로 형성됐다. 이에 대한 결과로 「다문화 가족지원법」 법이 제안 및 시행 되었다. 이러한 정책도 하나의 담론으로서 이 담론의 사회적 실천으로서 본 연구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텍스트와 같은 서사를 재현하는 미디어가 생산된다. 정리하자면, 다문화 청소년을 재현한 미디어 텍스트는 한국 가부장적 전통 가족 담론의 사회적 실천이자 그 담론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

둘째, 한민족 담론은 다문화 청소년을 ‘우리’로 포섭하면서 그 범주를 확대하고자 한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위계적 인종주의는 한민족 담론의 확장적 움직임을 저지한다. 미디어는 우리가 인종주의를 극복해야 하며 다문화 청소년이 ‘우리’와 같은 ‘한민족’라는 메시지를 강조한다. 하지만 한민족 담론의 이러한 확장성은 인종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인해 저지된다. 이렇게 다문화 청소년은 담론들의 움직임, 인종적 권력 체계의 경계에 위치한, 불안정한 하위주체로 존재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문화 청소년을 둘러싼 한민족 담론, 그 안에 국가와 민족 중심적 이데올로기, 인종주의 이데올로기를 비롯한 권력 체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미디어의 다문화 청소년 재현 분석을 통해 한국 가족 담론 안의 가부장적 전통 가족 체계, 단일 민족주의, 순혈주의, 위계적 인종주의 이데올로기와 그를 둘러싼 권력 체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다문화 청소년의 미디어 재현 문제는 문화적 시민권의 논의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전지구화(globalization)와 이주(migration), 그리고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이라는 현대 사회 특징은 국가와 같은 기존의 정치 공동체 논의에서 한발 더 나아간 공동체와 결속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사람들은 국경에 구애 받지 않고 넘나드는 미디어, 대중문화 텍스트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텍스트를 중심으로 다른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소속감을 갖고, 공동체를 형성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국가와 같은 정치 공동체나 지역 공동체보다 이와 같이 미디어, 문화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맥락 아래 헤르메스(Hermes, 2005)는 ‘문화적 시민권’을 결속력과 공동체 구성의 과정으로 정의하면서 사람들이 미디어, 대중문화 텍스트를 읽고, 소비하고, 즐기고, 비판하는 실천 행위를 통해 ‘문화적 시민권’을 확보한다고 했다. 즉,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한 시민을 재현하는 문제는 곧 재현 대상이 속한 시민 집단의 인정(recognition)과 소속감, 그리고 다양한 수용자, 즉 해석 공동체에 인식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민권 실천의 토대를 마련해준다.

이와 같은 논의는 현재 인종과 민족적 정경이 다양화 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미디어 재현의 중요성을 설명해준다. 미디어 재현이 다양한 구성원을 재현하는 것은 곧 그들에 대한 의미를 구성하고 또 공통의 의미 체계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사회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 존재인지 확인하는 것은 곧 미디어의 재현 체계를 통해서이다. 따라서 미디어의 다문화 청소년 재현이 시민으로서의 소속감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인정(recognition)의 문제로 귀결되고, 이는 대중문화의 재현 문제가 시민권의 논의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

본 연구는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 청소년이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 미디어의 재현 분석을 시도했다. 우리는 미디어의 재현 분석을 통해 현실 사회의 의미 체계와 사회 내의 중심 이데올로기 그리고 인종과 젠더에 관련된 권력 관계를 읽어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일정 부분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미디어 텍스트의 장르 및 문법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디어 텍스트의 서사를 분석하는 것이기에 미디어 장르에 따른 특징은 주요 분석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웹드라마, 웹툰은 저마다의 문법을 가지고 있으며 형식이 내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보다 세밀하게 고찰했다면 보다 풍부한 논의가 전개되었을 것이다.

둘째, 미디어 텍스트 분석과 함께 다문화 청소년의 인터뷰를 수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미디어재현 분석을 통해 거시적 차원에서 다문화 청소년과 이들을 둘러싼 다양한 인물관계 및 담론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지만, 실제 다문화 청소년을 직접 인터뷰하여 미디어 텍스트 분석과 비교하였다는 논의가 한층 더 두텁고 풍부했을 것이다. 이는 후속연구에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셋째, 청소년 내의 다른 집단, 예를 들어 중도입국자 혹은 한국의 일반 청소년이 재현된 미디어 텍스트와 비교 분석을 한다면 이들을 둘러싼 권력과 이데올로기가 더욱 명백히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비교 분석 또한 후속 연구로 제안해본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 청소년이 이산적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외국인 부/모와 함께 이주(migration) 담론 영역에서 논의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시민 주체로서 다문화 청소년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존재로 여겨지는지, 이들을 둘러싼 담론 체계, 즉 권력 관계는 어떻게 존재하는지 고찰하고자 했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며 이해하는 것이고, 앞으로 한국 사회의 인종 및 민족 구성원의 다양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 시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미디어 재현의 다양성을 강조하며 다양성의 표현 방법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을 제안한다. 연구자는 1 년 간 다문화 청소년의 학습 도우미로 봉사하면서 이들이 여느 청소년과 다름 없이 학교생활을 잘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청소년들은 미디어가 재현하는 것같이 모두 피부색 때문에 차별을 겪고 있지 않았고, 교우 관계에도 문제가 없었다.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게임, 음악이지 부/모의 국적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정형화가 계속될 경우 그 의미 체계 안에서 다문화 청소년은 동등한 시민으로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이 직접 자기 재현을 할 수 있다는 장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 거주하는 콩고 난민 청소년 조나단과 라비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재현하고 있다. 이들은 ‘흑인’으로서 한국에 사는 것에 대한 소회를 나누기도 하며 어떤 발언이 차별적인지 말하기도 한다.

참여적 미디어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는 안진과 채영길(2015)이 연구한 이주민의 직접 제작 및 참여하는 미디어 사례와 이토 마모루(Ito, 2013/2016, 244~277 쪽)가 연구한 일본의 다문화 라디오 방송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다양한 인종 및 민족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미디어는 다양한 얼굴을 가진 한국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재현하고, 한국인 정체성의 다양화를 구성하는 담론을 형성할 공적 책임이 있다. 이는 현재 다문화 사회라고 여겨지는 한국 사회에서 시민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중요하다. 나아가 시민 사회의 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디어의 다양성, 미디어의 다양한 재현 문제를 계속해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기현, 박민제, 성호준. (2017, 4, 09). 다문화센터에 실제로 다문화는 없어 김치·한국어 전수 한국문화센터 불과. <중앙선데이>. URL: <http://news.joins.com/article/21454659>
- 강주현, 임영호. (2011). 한국 영화에 나타난 장애인의 스테레오타입. 언론학연구, 15(2), 5-40.
- 교육부(2017). 2017 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발표. URL: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0224&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503&opType=N>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 4 조(2011.9.8). URL: <http://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 국적법 제 6 조 제 2 항 4 호(2008. 3. 14). URL: <http://www.law.go.kr/법령/국적법>
- 권금상. (2013). 대중매체가 생산하는 ‘이주여성’재현의 사회적 의미: 결혼 이주민과 북한 이탈주민 TV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권용희. (2013). 미디어에 나타난 다문화가족의 특성 연구. 다문화와 인간, 2(2), 183-207.
- 김경희. (2009). 텔레비전 뉴스 내러티브에 나타난 재한 이주민의 특성. 한국방송학보, 23(3), 7-46.
- 김기덕, 박민서. (2009).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48(1), 97-121.
- 김명혜. (2012). 한국남성들의 서사를 통한 국제 결혼과정의 재구성 및 분석. *구술사연구*, 3(2), 39-78.
- 김세은, 김수아. (2007). 저널리즘과 여성의 이중 재현. 한국언론학보, 51(2), 226-255.
- \_\_\_\_\_. (2008). 다문화사회와 미디어의 재현. 다문화사회연구, 1(1), 39-73.
- 김수정, 김은이. (2008). 아시아 여성의 국제결혼에 대한 미디어 담론. 한국언론정보학보, 385-426.

- 김수진, 홍창희. (2017). 다문화가정 자녀의 차별경험과 언어문제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1), 195-211.
- 김영옥. (2007). 새로운 '시민들'의 등장과 다문화주의 논의. *아시아여성연구*, 46(2), 129-159.
- 김현미. (2006).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 *경제와사회*, 10-37.
- \_\_\_\_\_. (2008). 이주자와 다문화주의. *현대사회와 문화*, 26, 57-79.
- 김혜순. (2008). 결혼이주여성과의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한국사회학*, 42(2), 36-71.
- 김환희, 이소윤, & 김훈순. (2015). TV 드라마와 젠더담론의 균열과 포섭 : 이혼녀와 미혼모의 재현. *미디어, 젠더 & 문화*, 30(3), 5-40.
- 박경태. (2009). 인종주의. 서울: 책세상.
- 박미숙, 이미정. (2014).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갈등원인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20(3), 149-174.
- 박시균, 최지은. (2015). 다문화가정 자녀와 일반가정 자녀의 학교교육 현황 비교 연구. *국어문학*, 60, 5-40.
- 박해광. (2007). 문화 연구와 담론 분석. *문화와 사회*, 2, 83-116.
- 법무부(201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7 년 3 월) URL: [https://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7&strWrtNo=224&strAnsNo=A&strOrgGbnCd=104000&strRtnURL=IMM\\_6070&strAllOrgYn=N&strThisPage=3&strFilePath=](https://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7&strWrtNo=224&strAnsNo=A&strOrgGbnCd=104000&strRtnURL=IMM_6070&strAllOrgYn=N&strThisPage=3&strFilePath=)
- 설동훈. (2014). 국제결혼이민과 국민·민족 정체성. *경제와사회*, 103, 278-312.
- 안진, 채영길. (2015). 공동체 미디어 실천과 다문화 정체성의 재구성. *한국방송학보*, 29(6), 94-136.
- 양경은, 함승환. (2015). 다문화정책의 사회통합 효과. *한국사회정책*, 22(2), 9-31.
- 양계민, 신현옥, 박주희. (2014).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465.

- 양현아. (2013). 가족 안으로 들어온 한국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실험. *저스티스*, 298-335.
- 오경석. (2009). 한국의 다문화주의. *HOMO MIGRANS*, 1, 9-32.
- 오창우. (2012). 미디어체계의 폐쇄성과 현실구성의 항상성: 신문사설의 다문화 구성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6(5), 216-243.
- 유선영. (1997). 황색 식민지의 문화 정체성. *언론과 사회*, 18, 81-122.
- 윤인진. (2007). 한국 민족주의 담론의 전개와 대안적 민족주의의 모색. *한국사회*, 8(1), 5.
- \_\_\_\_\_. (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한국사회학*, 42(2), 72-103.
- 이근무, 김진숙. (2009). 국제 결혼한 남성들의 생애사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1), 135-162.
- 이기형. (2006). 담론분석과 담론의 정치학. *언론과 사회*, 14(3), 106-145.
- 이동원, 박옥희. (2000). *사회심리학*. 서울: 학지사.
- 이미리, 조성연, 길은배, & 김민. (2014). *청소년학개론 / 지은이: 이미리 외*. 서울: 학지사.
- 이상길, 안지현. (2007). 다문화주의와 미디어/문화연구. *한국언론학보*, 51(6), 58-83.
- 이승연, 박지훈. (2014). 웹툰이 재현하는 청년문제와 재현방식.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23), 209-242.
- 이인희, 황경아. (2013). 다문화 관련 미디어 보도 프레임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다문화사회연구*, 6(2), 83-108.
- 이지민, 오인수. (2013). 다문화 가정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 및 애착이 진로장벽 인식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44 권 3 호, 193-216.
- 이지연, 그레이스 정. (2016). 다문화청소년의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전략의 조절효과. *보건사회연구*, 36(3), 336-362.
- 이혜경. (2008). 한국 이민정책의 수렴현상. *한국사회학*, 42(2), 104-137.
- 장은정. (2010).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예비학부모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3(3), 79-99.

- 장지연. (2006). 미국의 적극적조치 논쟁과 시사점. <한국여성학>, 22 권 2 호, 167-208.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유(1999. 9.2). URL:  
<http://www.law.go.kr/법령/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 전규찬, 박근서. (2004). 자기성찰적 텔레비전의 문화 정치적 가능성. *방송통신연구*, 239-263.
- 전규찬. (1999). ‘인종’의 한국 문화연구내 배치에 관한 계보학적 고찰. *한국언론정보학보*, , 99-136.
- \_\_\_\_\_. (2001). 인종주의의 전지구적 형성과 미디어 연관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 사회*, 9(3), 73-105.
- 정용화. (2004). 한국인의 근대적 지아 형성과 오리엔탈리즘. *정치사상연구*, 9, 33-54.
- 정희진. (2017). 한국 남성을 분석한다. 권김현영 외 엮음. 서울: 교양인.
- 조민식. (2012).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 차별문제.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학술대회, , 3-17.
- 조진희. (2012). 한국영화, 이주여성을 들여다보다. *언론학연구*, 16(1), 379-404.
- 주재원. (2016). 민족주의와 미디어의 공공성 / 주재원 [지음] (한국언론정보학회지식총서).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주혜연, 노광우. (2013). 드라마 속에 재현된 외국인과 한국의 다문화주의.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 335-361.
- 채영길. (2010). 미디어의 이주민 타자화 프레임 분석. *언론학연구*, 14(2), 205-241.
- 천호성, 박계숙. (2012).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다문화*, 2(2), 416-444.
- 통계청(2016). 2016 년 혼인·이혼 통계. URL: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59596)  
 read&aSeq=359596 자료 재구성
- 하상복. (2012). 황색 피부, 백색 가면. *인문과학연구*, 33, 525-556.
- 한준성. (2010). 다문화주의 논쟁: 브라이언 배리와 윌 킴리카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진상, 김효선. (2011). 농촌 국제결혼가정 초등학생의 교육 문제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17(2), 29-54.
- 홍지아, 김훈순. (2010). 다인종 가정 재현을 통해 본 한국사회의 다문화 담론. *한국방송학보*, 24(5), 544-583.
- 홍지아. (2011). 1 인칭 다큐멘터리에 드러난 결혼이주여성들의 자기재현과 정체성의 자리매김. *미디어, 젠더 & 문화*, (18), 147-181.
- 황매향, 고흥월, 김진영. (2010). 초등교사의 다문화가정 아동 지도 경험. *아시아교육연구*, 11(1), 147-167.
- Abraham, L., & Appiah, O. (2006). Framing news stories: The role of visual imagery in priming racial stereotypes. *The Howard Journal of Communications*, 17, 183-203.
- Adoni, H., & Mane, S. (1984). Media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Toward an integration of theory and research. *Communication research*, 11(3), 323-340.
- Appadurai, A. (2006). Fear of small numbers: An essay on the geography of anger. 장희권 (역) (2011). <소수에 대한 두려움>/ 서울: 에코리브르.
- Chandler, D. (2002). *Semiotics : the basics*. 강인규 (역) (2006). <미디어기호학>. 서울 : 소명.
- Dixon, T. L., & Linz, D. (2002). Television news, prejudicial pretrial publicity, and the depiction of race.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6(1), 112-136.
- Downing, J., & Husband, C. (2005). *Representing 'race': Racisms, ethnicities and media*. London, UK: Sage Publications.
- Edgar, A., & Sedgwick, P. (2002). *Cultural theory. 2. The key thinkers*. Routledge.
- Erikson, E. (1968). *Identity : Youth and crisis* / by Erik H. Erikson. New York: Norton.
- Eungi Kim. (2010). Korean Multiculturalism. *아세아연구*, 53(2), 102-129.
- Fiske, J., & Hartley, J. (2003). *Reading Television*: Routledge.

- Gandy, O. H. (1998). *Communication and race: A structural perspective*. London, UK: Arnold.
- Hall, S. (1997). *Representation: Cultural representations and signifying practices* (Vol. 2). Sage.
- Hermes, J. (2005). *Re-reading popular culture / Joke Hermes*. Malden, MA: Blackwell Pub.
- Ito. (2013). 情動の權力 : メディアと共振する身体. 김미정(역)(2016). 〈정동의 힘 : 미디어와 공진(共振)하는 신체〉. 서울: 갈무리.
- Joppke, C. (2001). Multicultural citizenship: a critique. *European Journal of Sociology/Archives Européennes de Sociologie*, 42(2), 431-447.
- Jung Hyesil. (2016). The racializ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by media in a multicultural nation. In Koichi Iwabuchi, Hyun Mee Kim, & Hsiao-Chuan Hsia. (Eds.) *Multiculturalism in East Asia : A transnational exploration of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Rowman & Littlefield International.
- Kawai, Y. (2005). Stereotyping Asian Americans: The dialectic of the model minority and the yellow peril. *The Howard Journal of Communications*, 16(2), 109-130.
- Kim, E. (2010). Korean Multiculturalism. *아세아연구*, 53(2), 102-129.
- Kim, H. A. (2016). Biracial identity development: A case of Black-Korean biracial individuals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cultural Education*, 18(3), 40-57.
- Kymlicka, (2002).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 an introduction. (2nd ed)*. 장동진 등(역) (2006).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공동체주의, 시민권이론, 다문화주의, 페미니즘〉. 서울: 東明社.
- Lippmann. (1922). *Public Opinion*. 이충훈 (역) (2012). 〈여론〉. 서울: 까치글방.

- Macé, E. (2000). Qu'est-ce qu'une sociologie de la télévision? Esquisse d'une théorie des rapports sociaux médiatisés. 1. La configuration médiatique de la réalité. *Réseaux*, 18(104), 245–288.
- \_\_\_\_\_. (2007). Des «minorités visibles» aux néostéréotypes. *Journal des anthropologues*, (5), 69–87.
- Mainsah, H. (2011). 'I could well have said I was Norwegian but nobody would believe me': Ethnic minority youths' self-representation on social network sites. *European journal of cultural studies*, 14(2), 179–193.
- Meijer, I. C., & de Bruin, J. (2003). The value of entertainment for multicultural society: a comparative approach towards 'white' and 'black' soap opera talk. *Media, Culture & Society*, 25(5), 695–703.
- Murdock, G. (2011). *Media, culture and economy : critical interrogations*. 임동욱 외(역). <디지털 시대와 미디어 공공성 : 미디어, 문화, 경제>. 파주: 나남.
- Osgerby, B. (2004). *Youth media*. London ; New York: Routledge.
- Santa Ana, O. (1999). "Like an animal I was treated": Anti-immigrant metaphor in U.S. public discourse. *Discourse and Society*, 10, 191 – 224.
- Sredanovic, D., & Farina, F. G. (2015). Can youth with a migrant background speak? Representation, citizenship and voice in Italian TV and press journalism. *Journal of Intercultural Studies*, 36(6), 693–709.
- Thwaites, T., Davis, L., & Mules, W. (2002). *Introducing cultural and media studies: a semiotic approach*: Palgrave.
- TIME STAFF(2017. 11. 03).The 30 Most Influential Teens of 2017. <TIMES>. URL:<http://time.com/5003930/most-influential-teens-2017/>
- Yoon, I. J. (2012). Migration and the Korean diaspora: A comparative description of five case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8(3), 413–435.

## 부록

토도로프(Todorov)의 통합체 이론을 토대로, 시퀀스를 통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전개를 거쳐 종결되는지 파악하고, 인물의 변화 과정을 살펴본다. 그에 따르면, 서사는 대개 균형(equilibrium) 상태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갈등이나 문제를 촉발하는 어떠한 힘이 작용해 불균형(disequilibrium)상태가 시작된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힘이 개입해 새로운 균형(equilibrium)을 찾는다.

### 1. 영화: 완득이

완득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서사의 전개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와 친구 삼촌과 함께 살고 있는 완득(균형) - 어머니의 등장(힘) -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혼란스러운 완득(불균형 1) - 완득이에게 어머니를 만나볼 것을 설득하는 담임 교사 동주(힘) - 집으로 찾아온 어머니와 식사하는 완득. 어머니가 놓고 간 편지를 읽는 완득(균형 1)

킥복싱을 접한 완득(힘) - 킥복싱 반대하는 아버지(불균형 2) - 완득 아버지를 설득하는 동주(힘) - 킥복싱 배우기 시작(균형 2)

### 2. 영화: 마이 리틀 히어로

영광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서사의 전개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엄마와 둘이 살아가고 있는 영광(균형) - 뮤지컬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힘) - 영광이의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을 반대하는 엄마(불균형) - 영광 어머니를 설득하는 프로그램 PD(힘) - 영광이의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균형) - 영광이의 재귀화 신청이 알려짐(힘) - 오디션 프로그램 결승진출 좌절 위기(불균형) - 유일한 감독의 설득(힘) - 영광이의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균형)

### 3. 영화(단편 애니메이션): 샤방샤방 샤랄라

은진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서사의 전개구조는 다음과 같다.

부모님, 동생 은수와 함께 살고 있는 은진(균형) - 같은 반 남자아이가 은진이 엄마가 필리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됨(힘) - 은진이 엄마가 필리핀에서 왔다는 사실을 놀리는 민철, 그리고 은진과 민철이의 다툼(불균형) - 이를 목격한 엄마들 간의 설전. 은진 엄마가 필리핀 어로 대항함(힘) - 자신 있게 대항하는 엄마가 자랑스러운 은진(균형)

### 4. 영화: 세리와 하르

세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서사의 전개구조는 다음과 같다.

동생을 임신한 엄마, 아빠와 함께 살고 있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세리. 이주노동자 자녀 하르와 사이가 좋지 않음(불균형) - 전 직장에서 사용했던 화학약품 때문에 아이를 유산하고, 다리에 마비가 온 세리 엄마(힘)- 엄마의 병원비로 가계 상황 악화, 아버지의 투쟁(불균형) - 친구 하르의 지지와 위로 (힘) - 하르와 화해(균형)

## 5. 드라마: 껌근이 엄마

명근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서사의 전개 구조는 다음과 같다.

시골에서 살고 있던 명근(균형) - 새엄마의 등장(힘) - 아버지의 재혼, 새엄마와의 갈등 시작. 전학 간 서울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명근. 아버지의 교도소 수감 및 출소. 아버지는 명근 생모를 찾으러 필리핀으로 떠남. (불균형)

도순(새엄마)은 자신의 어린 시절 상처를 떠올리며 명근에게 연민을 느끼고 명근이의 대신해 명근과 같은 반 아이들, 학부모과 맞섬. (힘) - 도순에게 서운했던 마음이 풀린 명근은 심리적 안정을 찾음(균형) - 그럼에도 필리핀으로 떠나고자 공항으로 가는 명근. 그러나 새엄마 도순의 사과 및 재결합 제의(힘) - 세 식구가 행복하게 삶(균형)

## 6. 드라마: 그 형제의 여름

동길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서사의 전개 구조는 다음과 같다.

가족으로부터 자신이 차별 받는다고 생각하는 동길. 가출을 결심하지만 여비가 부족(불균형) - 상금이 걸린 댄스 경연대회 포스터를 발견(힘) - 친구들과 함께 대회에 출전하여 상금을 타고자 함(균형) - 왕따 영길이가 자신의 동생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댄스팀에서 제외돼 대회 출전 좌절(불균형) - 자신과 영길의 출생의 비밀을 듣게 되는 동길(힘) - 가족들과 함께 댄스경연대회 참가(균형)

## 7. 웹드라마: 오늘부터 하모니

주인공 아린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서사의 전개 구조는 다음과 같다.

[전반부]

보컬 동아리 멤버 수 부족으로 대회 출전 무산 위기(불균형) - 새 멤버로 하리 섭외.  
동아리 리더 창렬의 하린 영입 반대. 선생님, 동아리 멤버들의 창렬 설득(힘) -  
동아리 구성원이 된 하리(균형).

[후반부]

방송사 PD 방영중 등장. 보컬 동아리 촬영 제안. PD 방영중은 아린이가 다문화  
가정이라는 사실을 아이들 앞에서 밝힘(힘) -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황하고 이후  
학교에 결석하는 아린. 반 아이들은 수군대고, 동아리 멤버들은 아린이를 두둔하며  
방송사 PD 에게 문제제기(불균형) - 동아리 친구들과 하리는 아린이를 위로함(힘) -  
다시 등교한 아린이를 환대하는 친구들(균형)

#### 8. 웹툰: 엄마는 외국인

웹툰 〈엄마는 외국인〉은 현재 시즌 3 를 연재 중이며, 매 회가 에피소드 형식으로 이루어져있다. 시즌 하나를 관통하는 서사는 없고, 각 에피소드마다 주제 하나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웹툰은 위의 미디어 텍스트와 동일한 방식으로 서사 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웹툰의 각 에피소드를 주제별로 분류한 후 본 연구의 주제와 밀접하다고 판단되는 에피소드를 추려 서사 분석을 시도했다. 그러나 코믹 장르라는 특성 상, 핵심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 유머로 마무리되면서 서사 전개에 따른 인물의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텍스트가 다루고 있는 중심 주제는 다문화 청소년 주인공 변기통을 중심으로 외모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있다. 그리고 엄마 프랑스 출신 변소피를 중심으로 1) 한국 문화 적응 및 동화(assimilation), 2) 외국(서양)과 한국과의 비교가 있다.

이외에도 일상적인 소재를 다루는 에피소드가 있으나, 본 연구와 관련이 없어 제외시켰다.

중심인물	중심 주제	시즌 1 (총 21 화)	시즌 2 (총 183 화)	시즌 3 (총 128 화)
변기통	변기통의 외모 및 정체성 고민	0	9	8
변소피	한국 문화 적응과 동화	7	12	10
	외국(서양)과 한국과의 비교	0	16	6
기 타	일상/기타	14	146	124

#### (1) 변기통 중심의 서사 구조 예시

백인 혼혈 청소년 변기통이 이국적 외모와 그로 인한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어, 시즌 2 의 71 화 ‘한국인’ 에피소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길을 걷고 있는 기통이에게 지나가던 아이가 ‘외국인’이라고 말을 김(힘) - 씹쓸해하는 기통(불균형) - 집으로 돌아온 기통은 한국에서 프랑스로 입양된 프랑스 장관이 ‘한국인’이라고 보도되는 방송 뉴스를 시청. 한국인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성공과 검정색 머리카락이 중요하다고 깨달음(힘) - 머리카락을 검정색으로 염색(균형) - 염색한 이후 나이가 들어 보여 후회하는 기통(불균형) - 있는 그대로가 좋은 것이라고 위로 해주는 엄마(힘)

이 에피소드는 한국 사회가 한국인으로 적극 인정하는 사람은 검정색 머리카락을 가진 ‘한국적’ 외모와 성공 스토리를 갖춰야 함을 드러낸다. 혈통주의와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성공한 인물을 ‘우리’로 끌어들이는 사회 담론에 비판적인 내용을 다루고자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문제제기만 했을 뿐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코믹적인 요소를 가미해 문제의 본질을 흐려버림으로써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간다.

## (2) 변소피(변기통 엄마) 중심의 서사 구조 예시

웹툰에는 외국인 엄마의 한국 문화 적응 및 동화에 관한 주제가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어, 시즌 2의 156회 ‘며느리’ 에피소드는 다음과 같다.

이웃 할머니는 명절 준비하러 내려오는 며느리들이 있다고 자랑하며, 외국인 며느리만 있는 기통이 할머니를 걱정함(힘)-불쾌한 심정 드러내는 기통 할머니(불균형)-이웃 할머니의 며느리들이 각기 다른 이유로 음식 준비를 못하겠다고 함(힘)-기통이네 식구들이 다 함께 모여 송편 만드는 모습(균형)

## Abstract

# A Study on Representation of Multicultural Youths in Korean Media

Yoonjoo Kwon

Department of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media representation of multicultural youths in Korea. In this study, ‘multicultural youths’ indicate youths under the age of 19, who were born to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s in Korea. Despite those youths have never actually had any migration experiences, they are often considered as young migrants or foreigners with diasporic identity. Given that multicultural youths have only lived in Korea since birth, it is imperative to separate them from immigrants or other migrants in discussion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media texts which represent multicultural youths to discuss the meaning of multicultural youths in Korean society, in addition to other discourses in which multicultural youths are subjected.

Media representation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people's perception of multicultural youths. Also, considering that identity formation of multicultural youths has an interactive relationship with media, the media representation of multicultural youths is even more important.

In this regard, this study raises such questions as ‘What is the narrative features in media text representing multicultural youths?’ and ‘Which discourses do the media texts representing multicultural youths bring about?’, then continues to suggest answers from analyzation of eight media texts in different media genres. Chosen texts are as the following: three full-length films, <Seri & Harr>(2008), <Punch>(2011), and <My Little Hero>(2012); a short animation film, <Shabang Shabang Shalala>(2010); two television dramas, <Mother of Ggamgeun>(2006) and <The Brother’s Summer>(2015); a web-drama, <Harmony from Today>(2015); and a web-toon, <My Mom is Foreigner>(2013~). The Todorov’s narrative analysis methodology was used to analyze the structure of the texts. Based on this text analysis, discourse analysis was practiced.

According to the analysis, we could find that multicultural youths are most often – eight out of ten – described as non-white biracial with gentle and passive personalities, not willing to fight against discriminative treatments from others. Parents of the multicultural youths also appear as main characters in the referred texts, and it is mostly the mothers who are foreigners. There are four females from the Philippines, one female from Vietnam, one female from Uzbekistan, one female from France, and one male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y are presented as devoted and hard-working mothers and wives in private space. On the other hand, their Korean male spouses are often

described as underprivileged, low social class men on margins of society, who are also neglecting of domestic matters in households. In comparison to multicultural youths and their mothers, Korean fathers are the least appeared in the media texts, not engaging to solve conflicts in the narratives.

There are two types of conflicts repeated in the media texts in common: first, family discords among household members, especially between multicultural youths and mothers, which is resolved through mother's love, generosity, and patience; secondly, the multicultural youths' inner conflicts and external confronts, experienced due to their 'different' appearance – non-white biracial youths with darker skin tones, in particular, are faced with racial discrimination both by their peers and strangers. Because these youths are often considered as 'foreigners', they have to constantly prove themselves being Korean by saying 'I am Korean as well'. However, the narratives are closed without resolving this conflict of different appearances. Media's repetitive representation of such conflicts is stereotyping multicultural youths as others and vulnerable beings.

Based on the narrative analysis of media texts, we can discuss social discourses as well. First, multicultural youths are represented with Korean multicultural family discourses on the patriarchal, traditional Korean family. In specific, multicultural youths' Korean fathers are authoritative figures, mostly concerning matters outside the household, whereas their spouses, the marriage migrant women, being wives and mothers in private spaces.

Secondly, Korean nation(*Hanminjok*) discourse incorporates multicultural youths into Korean nationals to extend its range and sustain its concept. However, the prevalent ideology of hierarchical racism in Korean society

interrupts this movement. Thus, the social status of multicultural youths is unclear and unstable, held somewhere between discourse struggles, extending Korean nation(*Hanminjok*) discourse and racism ideology. They are not fully 'us'(Korean), neither 'the other'.

Media representation of multicultural youths could lead to further discussion on cultural citizenship. The representation of various groups of a society in media is meaningful in that it is an effective way of projecting images of each group, as well as to construct mutual significance and trust among different groups in the community. In addition, we can recognize ourselves as members of a society through media representation with an enhanced sense of membership. Thus, media representation of multicultural youths results in such issues related to social membership and belonging. Eventually, it implies that media representation of popular culture can lead to citizenship discussion.

**Keywords:** Multicultural youths, nationalism, racism, representation, narrative analysis, discourse analysis

**Student Number:** 2015-22556